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10.24(금)오후2시~5시

▶ 장소: 장로성당

97.11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48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 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 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 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 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 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 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11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ITA(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7.11월호

<통권 55호>

<표지사진>

어른들은 저마다 아이들을
재나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아이들의 마음을 세대
로 읽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고려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어른은 얼마나 있을까? 아이
들의 참권리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본다.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
련을 위한 토론회』 현장에서.

일하며 생각하며 / 3

꿈을 향해 전진하는 이들

박주현

보육정책(1) / 5

15대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보육정책과제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정책(2) / 14

한국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제고찰

한국보육교사회 정책개발위원회

연장스케치 / 28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박금희

보육의 질 / 31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유아보육프로그램 질분석

남명자

통합보육 / 37

통합보육의 효과

윤선아

어린이건강 / 41

이유식 먹이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영양과 건강 / 51

질환별 영양관리(2)

남상미

교사의 의견 / 55

보육교사는 국고지원의 재교육을 원한다

민순영

연장소식 / 57

등근나라어린이집이 동네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박은하

북한어린이를 생각하는 주감어린이집 작은 음악회

박현석

‘97 인천 보육교사회 가을운동회

노승경

『어린이와 그림책』 강좌를 열고서

류현주

65 / 좋은 그림책 소개

고영미

우리끼리 가자 - 들집승의 겨울나기

67 / 소모임소개

이애용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강교사!-건강교사소모임

69 / 연장교육

김영금

풍물굿 배우기

72 / 육아일기

나은미

유빈이는 무쇠가 아니에요

73 / 공트

박화명

너무 슬픈 어느 가을날...

75 / 세상일기

위양자

피스트레이디의 희망을 위하여?!

77 / 오사카에서 온 편지

변미양

제15회 이크노문화제-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의 문화를! 냅을...

79 / 탁아소별곡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81 / 우리들의 목소리

김태일

야마가타 기록영화제가 주는 메시지

83 / 보육계 풍향

84 / 소식과 소식

87 / 편집부에서

짜·임·새

1997년 11월호(통권 55호)/첫발행 1992년 5월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남미영/목은이 박정애, 이선주, 황미혜/펴낸날 1997년 11월4일

일하며 생각하며

.....

꿈을 향해 전진하는 이들

박주현 · 변호사, 본회 고문

얼마전 사노맹 사건으로 15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대학친구 백태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친구는 편지에 영어로 된 어느 식구절을 적고 번역까지 덧붙여 보냈는데, '내 주위에서 뭔가 신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없어지는 순간 노인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기 때문에 노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얼마전 어느 주간지 칼럼에 '대한민국은 망할 것인가'라는 글을 썼다가 그 칼럼란 자체가 없어진 일이 있었다. 사람이란 현실을 잊기 위해 꿈을 꾸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꿈을 꾸든, 꿈을 꾸지 않고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얼마전 기독교방송에서 권영길 후보를 상대로 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에 쫓겼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꿈을 열심히 꾸는 사람은 흥천연색 꿈을 꾸기도 하고,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도 하고, 꿈의 내용에도 살이 붙어서 재벌 이야기가 길게 나가기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직 꿈을 덜 꾸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넉넉한 세상이다.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해서 나누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이다. 사랑하는 후배가 발달이 조금 지체된 딸아이 때문에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있다는 사람들이 구두쇠처럼 절약하여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복지사업에 투척하여도 사람들에게 별종인간이나 정치지망인으로 오인되지 않는 세상. 소외된 사람들이 물려서 사회에 정부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면 빨갱이로 모는 대신 사뭇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는 세상. 잘못된 사람은 처벌받고 부족한 사람은 도움받는 세상, 아니 이것저것 다 떠나서 서로서로

미워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 아닐까?

기독교방송 토론회에 함께 패널로 참가하였던 분이(그 분도 좋은 분인데), 권영길 후보가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언급하자, '교육이 무슨 사회복지냐'라고 반문하였다. 중간에 잠깐 선전이 나가는 시간에 '복지국가에서 의료와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로 무상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제도가 교육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되고 있다. 교육을 본래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 위주의 입시교육, 경쟁을 목표로 한 파행교육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복지현실, 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권영길 후보측에서 수행한 참모진들과 후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진보세력들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상품도 없이, 그동안 사회복지나 조세문제에 진보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온 역사도 없이 단숨에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는가 하고 따져 보았으나, 이미 었지러진 물, 이왕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으니, 그 사회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청사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충실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한 참모진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목표로 정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10여년간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대답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지나온 지난 10여년은 길고도 험난한 세월이었다. 신나고 보람있던 순간들도 꽤 많았지만, 그보다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무력감을 느껴기도 했던 세월들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지략연에 대해 자긍심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지략연은 참세상을 향한 열정이 분명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목표를 저버리지 않고 그 목표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보육교사회로 자신의 위상을 설정한 것조차도 거창한 말보다는 작고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성실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든든하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언론과 교육이 살아있어야 한다고들 한다. 교육 중에서도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기의 교육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잃지 않는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이 우리의 반복지적이고 파행적인 경쟁교육을 복지적 교육, 인간적 교육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보육정책(1)

15대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보육정책 과제

· 한국보육교사회 ·

본회에서는 15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이 이행하여야 할 보육정책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각 정당 및 여론기관에 보냈습니다. 보육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일관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원 여러분은 관심있게 보시고 부모교육자료등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육정책 공약제안 배경

1. 아동에 대한 가치개념을 다시 인식해야 할 때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의 대상은 결손가정의 아동,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넓혀져야 하고, 아동복지의 기능은 단순한 보호, 또는 '결여'를 메꾸는 협의의 개념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세대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미래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이끌어갈 주체이자, 유보될 수 없는 권리를 지닌 존재이기에 아동의 복지는 권리의 보장과 기능성의 보장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내포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욕구에서 출발하여 어린이다운 성장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의 보장, 교육과 기회의 보장, 최적의 지적·물적·사회문화적 환경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보육이 이러한 목적에 바탕을 둔 사회적·전문적 역할의 분화라 할 때, 보육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수혜자인 아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1C를 열어갈 차기정권의 수반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정당, 후보들이 제시하는 보육정책 공약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고 끝까지 고수되어야 할 원칙은 바로 이러한 '아동중심'의 사고이며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라 하겠다.

보육사업은 1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당면의 과제 또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이야말로 아동에 대한 가치개념을 새롭게 인식하여 보육정책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변화하는 사회상황과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 제시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2. 보육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보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중심사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아동에게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복지정책은 복지욕구가 긴급한 특수계층 및 집단, 즉 빈곤층, 장애인, 보호시설의 아동 및 노인문제 등을 공적부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선별주의 정책위주였으나, 현대는 전체국민의 복지요구를 수용·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주의 복지정책으로 확대 발전되어가고 있다.

초기 보육사업단계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이 그 수혜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아동의 보육은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보호와 교육을 균형있게 진행하고 있고 보육연령 또한 0세 ~ 12세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중심의 보육, 일반아동은 민간시설에서 보육을 받는 형태로 이원화된 형태로 현재 보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아동을 생각하면, 어느 계층의 아동이거나 국가로부터 동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공보육에서 포괄해야 하는 대상은 넓어져야 하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양적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마련할 때 자유주의 복지정책의 기본원리인 최저수준의 보육사업(예, 시간제보육, 영아보육 등)을 중산층에게도 확대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육요구가 큰 저소득층 맞벌이가정대상 위주의 사업에서 모든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3. 보육사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이다.

1994년 발표된 『보육사업 장기발전계획』과 『영유아보육 사업 확충계획』이 1997년으로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육사업 추진계획에서 보육사업의 방향전환을 양적확충에서 질적수준향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보육사업의 내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특수보육시설 지원확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추진 등 의욕적으로 질적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 예로 1997년 3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아교육개혁방안 공방중에서 아동보호중심의 보육으로 보육사업 내용의 한 측면만이 부각되고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보육사업이 양적확충에 치우쳐 질적인 면을 도외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한 면이 될 것이다.

명실공히 보호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보육사업으로서 질적도약을 이루기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보육사업의 질적도약을 이루기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5대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보육정책 공약 제안

1. 보육사업 질적고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황

① 정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시급한 보육수요가 '97년말로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정부는 7월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현행 인가제도의 것을 신고제도로 완화하는 등 보육시설 설치절차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③ '97년 8월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총 297개임에 반해 시설설치율은 12%에 불과한 36개소이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19개소에 불과하다.

④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기에는 현재의 보육정책으로는 어렵다.

(2) 문제점

◆ 보육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

① 기혼여성들의 직업현황이 다양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보육요구를 종일제보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고 따라서 보육시설의 이용율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안은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지방자치체의 균형있는 보육발전의 문제

①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서울시 중구 경우는 205.6%의 높은 보육율이 나타나고, 천안시의 경우 5.3%의 낮은 보육율 통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이나 지자체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투자의 의지가 낮은 곳은 아직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따라서 양적확충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육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율 비교

(단위: %)

구 분	지역평균	최 고 지 역		최 저 지 역	
서울	94.4	중구	205.6	도봉구	61.7
부산	32.9	중구	69.3	연제구	22.8
대구	35.2	중구	54.7	달성군	27.5
인천	32.2	송전군	76.0	서구	10.8
광주	10.2	동구	13.4	남구	7.9
대전	34.0	-	-	-	-
경기	63.3	김포군	186.8	군포시	32.6
강원	76.3	속초시	99.0	화천군	30.7
충북	55.0	충주	69.0	보은군	30.0
충남	10.0	연기군	21.3	천안시	6.3
전북	31.1	진안군	47.4	부안군	11.1
전남	47.8	함평군	129.4	완도군	16.3
경북	29.3	김천시	67.9	경주시	15.3
경남	51.0	밀양시	96.9	하남군	16.0
제주	64.9	서귀포시	75.0	남제주군	65.7
전국평균			58.9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 전국 평균은 보건복지부(1996)

주 : 1) 전국 평균은 1996년 9월 현재의 평균 보육율임

2) 보육율은 보육아동/보육대상아동 × 100

3)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대상아동 산출방식은 약간씩 다름.

대체로 ① 만6세이하 아동의 25%를 하거나 ② 6세이하 아동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보육요구비율로 보육대상아동을 파악하고 있음

◆ 양적확충 중심의 보육사업 문제

① 양적확충중심의 정부정책은 그에 따른 관리가 함께되지 못하면서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대상화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시설설치를 완화한다면 양적확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직장보육시설 확충사업 부진의 문제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300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 중소기업체에 집중되어있는 기혼여성들의 직장보육시설 이용율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97년 2/4분기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6%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서비스가 취약하여 M자형의 후진적인 여성취업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의 여성인력 의존도는 높아가는데 육아 등으로 인한 취업단절은 여성인력을 저임금, 단순노동에 머물게 하고 있다.

◆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

① 현행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에서의 교사양성체계는 교육시간의 짧음, 교육내용의 부실함, 단기적인 실습 등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는 현재 보육시설(특히 소규모 민간시설)에서의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2급 자격소지자는 구직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

② 이로 인해 2급교사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육교사 전체에게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조건,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심리, 높은 이직률, 보육교사자격에 대한 권위실추 등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질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③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교사1인당 아동수는 유아의 경우 20명이고 하루 10-12시간을 근무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은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④ 보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지원이 미진하여 보육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교사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기는 근무조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⑤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역할이 비슷한 유치원 교사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음으로 해서 교사업무의 성취도도 매우 낮게 나타난다.

⑥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시설의 보육교사들과 지원이 없는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소규모 민간·가정시설은 종사자의 수가 5인 미만으로 인해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설치주체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 등 복지내용이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시설 규모, 설치주체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정책과제

◆ 보육사업의 질적도약을 위한 보육사업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① '97년말로 마무리되는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해 통계적인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전국적인 보육률 차이에 대한 평가와 균형있는 양적확충을 이루어야 한다.

◆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① 종일제보육뿐 아니라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등 보육유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내용과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①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와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문대이상 수준의 보육교사 교육훈련 및 자격증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시간의 확대, 교육과목 및 내용 조정, 자격

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시험제도 등 교사양성체계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② 보육교사들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과 인건비 인상, 교권확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등 보육종사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보육현장에서 보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교사재교육 및 종사자 재교육을 강화하고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④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교사들간의 차이를 좁혀낼 수 있도록 민간시설 교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보육사업의 지원체계의 공고화

(1) 현황

① 보육시설 현황은 '97년 2/4분기말

(단위:개)

계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민간(개인)	가정(놀이방)
14,054	1,103	1,526	103	149	5,614	5,559

② 아동현황은 전체 483,963명으로 전체 보육수요 아동의 추계치 50% 정도이다.

(단위:명)

계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민간(개인)	가정(놀이방)
483,963	87,488	117,886	4,521	4,723	201,772	67,273

③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은 시설별지원과 아동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별 지원	아동지원
운영비, 지원비, 인건비,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신축비, 개.보수비, 정보센터 설치비, 농어촌시설차량운행비,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 등	법정저소득층아동 지원 기타저소득층 아동지원

④ 보육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내부행정체계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과에서 기존업무에 보육사업업무를 추가하여 관장하고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는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전국에 설치된 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

(2) 문제점

◆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 약화로 인한 문제

① 부모가 보육의 책임주체로 강조되어 보육대상 아동수의 산정방식과 보육비용의 부담,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보육료 지원대상 등에서 보여지는 특징에서 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 국가주도의 그 의미가 미약하다.

② 이는 재정지원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책임이 극히 미약하게 작용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③ 재정지원의 내용은 다양하나 국·공립시설에만 재정지원이 국한되어 있고 보육사업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은 교재·교구비 지원의 단 하나에 그친다. 이러한 지원의 불균형은 질적인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④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서울의 경우 국고:지방비의 비율이 2:8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그 비율이 6:4의 비율로 일관되게 지원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별 보육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 문제는 수혜자인 아동과 부모에게 나타난다.

⑤ 보호자의 역할이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다.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보육사업에서 시설 운영, 사업 참여, 보육프로그램 구성 등의 참여구조로 보육위원회가 있지만 그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 보호자는 단순히 보육서비스 이용자일 뿐이며 매우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보육행정 체계상의 문제

① 중앙정부의 정책기능이 미약하다.

이 문제는 정책기능의 핵심인 보육육구의 측정, 적절한 보육서비스 공급계획,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표출되고 절대보육육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행됨으로서 공공보육에 대한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보육이 복지사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

②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재량적 참여가 미약하다.

③ 보육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④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사문화되어 있다.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개별 보육시설들이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기구의 활성화와 행정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⑤ 표준보육단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표준보육단가가 그대로 보육료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보호자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첫째 문제는 표준보육단가가 실제 보육비용에 미달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보호자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 정부지원의 부족의 문제이다.

① 현실적으로 자체 수용능력이 없는 시설은 전체 인건비를 낮추거나 이를 보육아동에게 부담·전가하게 된다.

② 시설별지원에서 지원액 부족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과의 차별이라는 문제도 유발한다.

③ 보육사업지침에는 지방자치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보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④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완화(보육시설 및 종사자 기준완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와 운영부담 완화, 직장시설 교사인건비 고용기금 지원, 사내 복지근로기금 투자 허용)는 양적확대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그에 따른 질적 관리의 문제가 야기된다.

3. 공약 제안

◆ 정책기능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 증가

② 보호자의 참여 강화

③ 중앙 및 지방 보육위원회 강화

④ 보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 행정지원체계의 공고화

① 보육행정의 전문화

② 취약한 지자체 행정력 강화를 위한 지원

③ 보육시설의 행정부담 완화

④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 산정방식의 개선

⑤ 보육정보센터의 양적확대와 질적보장을 위한 지원

◆ 재정지원체계미련 및 공고화

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② 전체 보육교사 재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

③ 경감 아동지원선 확대 및 기준의 세분화

④ 세제 지원의 체계화 및 다양화

⑤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4. 보육예산의 확대

(1) 현황

보육사업 국고 예산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96년 예산	'97년 예산	비고
110,349,000원	133,707,000원	21.2% 증가

(2) 문제점

◆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의 문제

① 점진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인상되고 있으나 국·공립교사와 동일직종인 유치원교사의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시설 교사는 국공립교사에 비해 60%의 수준에 머무른다.

② 정부는 인건비를 2000년까지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나 이는 국·공립교사에 한한 것이고 민간시설교사들의 임금 차이는 인건비 지원의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커질 것이다.

◆ 보육사업 기조변화에 따른 예산확보문제

① 국가책임의 강화와 보육활성화 사업제시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확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는 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될 소지가 있으며 질적 변화를 역행할 문제가 있다.

② 보육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화에 맞는 예산확보의 의지가 미약하다.

(3) 공약제안

◆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①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
- ②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 확보
- ③ 민간시설의 공공성 부여를 위한 민간시설 지원 예산 확보
- ④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⑤ 지자체별 차등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⑥ 행정지원 및 지원체계의 공고화를 위한 예산 확대

◆ 보육비용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① 경감아동 지원선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 ② 현실적인 보육단가와 부모부담을 줄이는 보육료 차이에서 나타나는 보육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예산 확대

보육정책(2)

한국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제고찰

· 한국보육교사회 정책개발위원회 ·

본회는 지난 10월24일 (사)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회가 고민해온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토론회에 참석치 못한 독자 여러분들과 본회 개혁안을 공유, 점검 받는 의미에서 토론회 자료집중 주제발표로 제시된 '한국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제고찰'을 다시 실습니다. 꼼꼼히 읽고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금년 3월,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이 지난 3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혁)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공교육체제 확립 방향을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3세 이상 유아교육을 기본학제에 포함하여 교육과 보호서비스의 통합 제공, 취학전 5세아 유아교육기관 100% 취원, 저소득층 5세아 우선 무상교육 실현이 그것이다. 그리고 초창기 교개혁안에서 5세아 무상교육의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유치원 중심의 공교육체제 확립과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가 보육계의 반발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제안이라는 비판에 부딪치자 세가지 방안으로 수정·제시한다. 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입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전제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과 유아교육에서 교육과 보호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출발점 평등의 대원칙이 표방되는 것은 지금껏 유아교육을 소홀히 해온 정부의 정책의지가 한껏 성숙한 결과로 비춰져 일선 유아교육 담당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기대와 호응을 모을 수 있었다. 즉 향후 개혁안의 가시화를 통하여 모든 유아들이 확대된 공적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개위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 무상교육의 대상설정과 기본학제 포함방안(유아교육기관 일원화 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론몰이식 조급성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즉, 급변 개혁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쟁점들은 모두 향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좌우할만한 굵직한 사안들이었으므로 논의를 촉발시키는 교개위 입장에서는 풍부한 선행연구와 신중하고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제세력들에 대한 참여보장과 민주적 합의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유아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재원확보방안, 통일적 행정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필요성을 자인하면서도 안전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로 이후 논의테이블을 "유아교육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5세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위 최종안은 예산상의 문제로 재경원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유아교육 관련세력간의 이견도출만 난무한 채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조선일보 '97.9.7).

다소 뒤늦은 출발이지만 정부에 의해, 영유아를 위한 공교육체계 확립 개혁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불러일으킨 유치원·보육시설 통합논의 과정은 개혁방향을 표류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 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유·보 통합논의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책임적 활동과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밝히고자 마련되었다. 유·보 통합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그간의 내부토론과정을 통해 정리되었으나 많은 부분 충분치 못하며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연구과제와 토론과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와 토론자들의 지적은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극복하고 더욱 심도 깊은 연구 및 재논의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급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개혁논의의 관점, 유아교육기관 통합 가능성 모색, 각계의 입장, 우리의 입장으로 나누어 서술코자 한다.

II. 개혁논의의 관점 정리

교개위의 개혁안은 유아교육계 뿐만 아니라 보육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그간 개혁안을 둘러 싸고 벌어진 논쟁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대조적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성과의 수혜대상 범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즉, 무상교육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특정계층이나 조건의 국민들로 한정하는 선별주의적 관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전체 아동에게 확대 가능하도록 보편주의적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외형상 전적으로 보편주의적 관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둘째, 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기관중심적 관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아동(수혜자)중심적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공급보조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비보조나 세금감면과 같은 수요보조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두가 교개위의 공급보조의 -시설확대와 운영비보조로 표현되고 있다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듯 하다.

넷째, 그간 유아교육의 사교육화로 말미암아 관련기관 안팎으로 팽배해진 불신·경쟁의식·책임회피적 자세와 분리주의적 관점을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각 기관별로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로서 서로의 공헌도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앞으로 유아교육의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길에 동료의식을 가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을 거쳐 온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각기 다른 관점중 어느 것에 기반한 주장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사회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교육환경은 많은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급변의 교개위안 발표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변천과정을 걸어온 여러 유아교육 관련시설들간의 일원화를 장차 무리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디가는 듯 하더라도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고 차근차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 빠르고 힘있는 출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관운영 주체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보다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고민하는 교사정신을 되살려 보기 바라는 바이다.

III. 유아교육기관 통합 가능성 모색

쟁점이 되어 온 유아교육기관 일원화 방안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보육시설과 유치원 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동일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정리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을 유아교육기관 혹은 준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유아교육기능 강화, 보육시설의 일정부분을 유치원 체제내로 흡입하려는 의도를 개혁안 혹은 단체의 의견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육계는 보육시설 내에서 유아교육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원에 있어서 유치원 뿐 아니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도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양 기관은 기능이 다르기에 다른 부처소관으로 양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양 기관의 기능은 재정측면과 체제측면에 따라 동일(혹은 비슷함) 혹은 차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기관설립의 목적과 양 기관이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속에서도 드러난다. 유아의 심신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아동 자체의 발달에만 초점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교개위의 문제인식에서도 드러났듯이 재정 확보의 문제(무상교육), 여성취업을 증가(종일반)로 인한 아동양육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인식확대를 보인다. 반면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보육시설은 종일반, 보육료 국고지원 등을 기본환경으로 두면서 주로 12시간 아동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매달리는 편이다. 그러나 각각은 이러한 상호 기능과 역할의 확대, 확대에 의한 역할기능 중복현상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양 기관의 기능의 동일성과 차별성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강조점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다고 보기에 이들 동일한 차원에서 보아야만 통합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의 보호·교육권리에 대한 양 기관의 역사적 책임수행에 대한 확인이다.

교개위의 표현대로 유아를 둔 가정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좋은 교육내용을, 저렴한 비용에,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 주는 유아교육기관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바램은 오늘날의 바램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나라에 유아교육기관이 등장한 100여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졌던 바램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정책의지, 재정확보 등 여러 사회환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의 아이들을 위한 보호·교육권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해당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역할분담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라는 점이다. 이러한 판단은 다소 무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 위험하기조차 한 판단이라 여겨지나 과거를 통해 현재의 책임성을 판단하고(혹은 반성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합의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며 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성인은 장·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 일원화의 가능성

금번 교개위안을 통해 일원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이것이 기본학제 편입 및 5세아 무상교육 혜택대상 선정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서 향후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정통성과 독점적 우위를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논쟁의 정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력이었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원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의 구체적 합의과정에서는 실제 유아교육과정에 자본투자와 운영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설학원 및 선교원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프랑스 같이 국민들의 자기개발 욕구에 기인한 사회(재)교육기관이 널리 발달하였다면 사설학원의 발전경로도 다르게 모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 모델과는 별개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이들 기관들은 열악한 시설기준과 교사진의 전문성 결여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담보해내지 못한 전지역 전계층에 걸친 유아교육의 틈새시장을 개척해온 교육서비스 제공자이다. 이들 세력이 정규학교 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앞으로 다양한 부가적 교육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가. 첫번째 가능성 모색 - 기능적 동질성에서 기인한다.

일원화 논의의 최우선적 전제로 밝혀져야 할 것은 과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차이가 단순히 현실적 운용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인지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근원적인 차이인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두시설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운영 목적을 비교해보자.

교육법 제146조를 살펴보면 유치원 운영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상에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한다.

법조문 그대로를 볼 때 두기관 모두 유아의 발달과 교육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두시설의 기능적 특수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던 몇가지 사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쟁점1 - "교육과 보육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에 관하여

그러나 실제 두기관의 일일교육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분리적 사고는 부정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전계층에 걸쳐 확대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짐으로써 두시설 모두 운영시간과 급간식 제공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문제, 어린이 성폭행 등의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아 안전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훈련이 강화되고 교육과 보호서비스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시설운영, 교육과정에서의 질적개선에 힘쓰고 있어 단순 탁아기능에서 벗어나 교육기능의 강화가 한층 강조되고 보완되는 과정에 있다. 결국 보육시

설에서 수행하는 "보육 (edue-care)"이란 용어는 몇십년 전 유아교육과의 전신이 되었던 보육과에나 적합한 구식용어가 아닌 학계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는 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나타내주는 신조어로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공히 채택되어야 할 기능이라 판단된다(Caldwell 86, Spodek 92).

○쟁점2 - "두시설은 서로 다른 대상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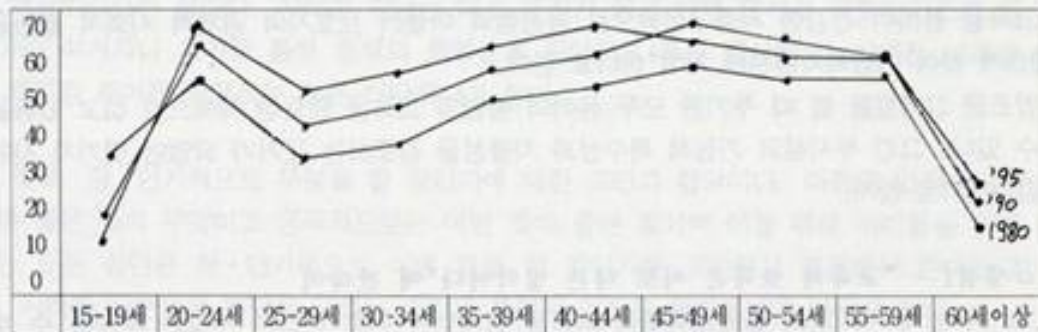
유치원은 유아의 욕구에, 보육시설은 영유아와 더불어 부모의 욕구에 기반하므로서 기관의 기능적 성격이 교육체계나 지원체계나로 구분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유아기 교육은 유아의 교육형태를 결정짓는 권한대행자이자 교육기관과 함께 교육적 환경의 양측을 구성하는 부모(가족)에 대한 지지, 지원, 협조가 있어야 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3 - "영아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가능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이란 영아기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법적 입소 연령이 되는 3세 이상이 비로소 집단교육이 가능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애써 저연령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영아기 또래경험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연령구분보다 일찍 또래간의 상호작용과 우정이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Hay 85:Boownel, 86:Howes)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여성의 연령세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산육아기 여성의 취업율과 근속율이 계속 증가 추세여서 유아교육 대상의 연령 하향화는 시대적 요구로 보여지며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이런 사회적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표1) 여성의 연령세대별 경제활동 변화추이



「여성인력의 고용합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중 6쪽,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증대 방안, 최강식(한국노동연구원)

다음은 과연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다른 뿌리를 갖고 태어났는가 여부에 대해 외국 유아교육기관 탄생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세계 최초의 반일제 유치원이 독일의 고아원 원장이었던 프리델에 의해 설립된 것이 1816년 독일에서였다. 이후 1850년대말까지 영국, 프랑스, 미국등지에 유치원이 설립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서는 1767년 프랑스에서 오벨린 목사가 세계 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목재산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자녀들과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종일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종일보육원도 서구의 산업화과정에서의 필요수요와 맞물려 급속히 확대해 나간다.

중세사회에서 부모의 아동양육자였던 유모제를 대신하여 이러한 공동양육(집단교육)방식이 발전하게 된 동기는 산업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분화과정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18세기 중상주의 국가의 도래와 교육철학의 발전과정에 힘입어 차세대 노동력인 아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후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은 더 이상 재화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성인남성 뿐 아니라 아동과 여성까지도 임금노동자화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가정이 수행했던 자녀양육, 교육, 가사노동 등이 기능들이 국가나 자본에 의해 분화를 촉진받게 되어 일부는 공적영역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상품화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초창기 유아교육기관은 그것이 종일제교육, 반일제교육에 상관없이 가족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분화되기를 요구받는 자녀양육의 기능을 전문화 집단화시키며 탄생된 것이다. 특히 빈곤 결손가정의 아동양육(교육)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관계로 초창기 유아교육기관의 주대상은 이들을 대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능분화의 순서를 굳이 찾아 본다면 초창기 가내수공업이 발전하고 공장노동이 전면화되기 이전의 얼마간은 "보호기능"은 일차적으로 가족책임하에 온존한 채로 "교육기능"이 먼저 사회화되어 학교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부모세대의 경제활동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종일 보호의 기능이 보완 강화되어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나. 두 번째 가능성 모색- 영유아 보호·교육권리에 대한 책임수행의 과정

이를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고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점령기에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부산유치원의 역사가 올해로 꼭 100년 되는 것이다. 이후 1976년 최초의 공립유치원이 세워져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1980년까지 우리나라 유치원은 명실공히 일부 부유층 자녀의 사교육기관으로서 대상연령 유아의 단 2%만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6, 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의 축적으로 국민들의 대중적 유아교육기관 설립요구가 급증하였고 이런 국민적 소망을 일반 사립유치원들이 애써 외면하며 일본과 같은 귀족교육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성장하게 된다. 그들은 다름아닌 급변 일원화 논의과정의 소외자이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착단계에서 정리대상 1호로 취급받고 있는 선교원과 골목유치원, 그리고 가내학원들이었다. 물론 사교육시장의 확대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들 역할에 대한 부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뜻있는 국내 학자의 연구로 이들 기관의 활동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다.

다음의 표는 5공화국 정부의 유아교육 활성화 촉구정책으로 1982년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새마을유아원으로 유아교육기관이 통합되던 당시의 유치원 현황과 미인가 시설현황을 비교해 본 것이다. 새마을유아원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는 내무부 산하 새마을 협동유아원(263개소), 보건부 산하 어린이집(691개소), 농업진흥청 산하 농번기탁아소(382개소)가 참여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보육기능시설과 유아교육기능시설(유치원)로 크게 이원화된다. 그러나 이 당시 이원화의 논리적 배경은 보호와 교육기능에 대한 차별성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반일제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종일제 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정부 주도의 단순논리가 작용했던 것이다. 단지 미인가시설로 남은 세시설들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역사만은 발견할 수 있다.

(표2) 1982년 유아교육기관내 유아보육 현황 (단위: 개소, 명)

시 설 명	시 설 수	원 아 수	비 고
유 치 원	3,463	168,653	1957년부터 설립
선 교 원	4,800	192,000	
골목유치원	330	12,000	
학원유치부 및 가내학원	667	25,000	

*유아정보 97년 10월호 유아교육100년사를 돌아본다.

이후 한국 유아교육의 역사는 기존 유치원의 성장율을 단기간에 제치고 놀라운 양적성장 과 공교육화의 길을 먼저 개척하게 된 보육시설의 발전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신장하였고 1970년 당시 71.5%의 비율을 보이던 핵가족 비율이 1990년 76%로 전면화되고 평균자녀 수 또한 3.7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통계청 1993 인구주택총조사) 현대 가족구성원의 라이프사이클과 기능분화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의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등을 이유로 점차 유치원화하고 있던 대다수 새마을유아원들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가난한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방치 상태에서 사고사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빈번히 보고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긴급한 보육시설 확충대책 마련과 단독입법 제정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단독입법 요구로 인해 교육계와 보육계가 법적·제도적으로 확연히 분리되는 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는 비판적 해석도 일부 존재하는 듯 하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보육기능의 부활을 위해 개정하려 했었던 "아동복지법"을 고수했을 경우 지급과 같은 정부예산의 놀라운 확대가 가능하였을 것인지를 과연 그것이 유보일원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법제정 요구 당시인 1990년초의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의 취원율은 5세아를 기준으로 60%에 못미치고 있었는데, 만일 그 당시 유아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아교육

기관의 양적확대와 공교육화가 좀 더 진전된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 요구방향도 유치원내 종일반 확대로 나타났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보육시설 분리성장 과 유치원계의 소외감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는 기본학제 편입을 위해서는 대상연령의 80% 이상의 취원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유아교육계에서 당시 골목유치원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으며 성장하고 있던 소규모 민간탁아소와 선교원의 교육의 질과 영향력에 대하여 진정 아동중심적 사고에서 이들의 양성화에 관심을 보였다면, 그리고 학부모들의 탄력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면 보육법 제정당시 일원화논의가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표3) '96 주요 유아교육기관 현황

명 칭	시 설 수			유형별 점유율		아동수	비고	
	총 계	국공립	민간	종일제	반일제		공립	사립
유 치 원(1)	8,943	4,377 (48.9%)	4,566 (51.1%)	22%	78%	551,886	115,918 (21.0%)	435,968 (79%)
보육시설(2)	12,098	1,063 (9.3%)	10,317 (90.6%)	100%		383,094	84,529 (22.0%)	268,565 (77.9%)
사설학원(3)	6,841					446,080		

(1) 교육부 '96유치원현황 (2) 보건복지부 '97 보육지침

(3) 한국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 제안서

다. 장·단기적 과제와 관련하여서 참고적으로 각국의 유아교육기관이 유형분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 각국의 발전된 유아교육체계를 분류하는 작업은 한국 유아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국의 유형분석 후에는 현단계 한국사회에서 추진방향을 채택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몇가지 고려요인을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후자는 특히 각국의 상이한 발전경로 및 수준차이를 있게 한 요인들로서 우리의 발전단계 구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보육제도 모형연구의 대표학자인 미국 칼럼비아대학의 칼벌맨 교수의 보육제도 모형을 이용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류기준은 각국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교육시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시설들의 유형, 대상유아, 행정적 책임과 운영주체 등을 분류기준화하고 있다(임재택 「세계 주요 8개국 탁아제도와 정책의 분석」 중 재인용, 여성학연구 제2권 68).

(표4) 각국의 유아교육 기관 유형

유형	국가명	기관명	대상연령	비용부담	주요기능	관할부처	비고
이원 병행 형	영국	유아학교	2~5	5세무상 의무	교육	교육성	초등교육과정
		유아원	2~4	무상	교보통합	//	
		유아센터	0~5		종일보육	//	
	미국	유치원	5	무상	교보통합	교육성	
		유아원	3~4	부모부담	반일교육	//	
		보육시설	0~5	차등부담	다양보육	보건사회복지성	
	일본	유치원	3~5	부모부담	반일교육	문부성	
		보육소	0~5	차등부담	종일보육	후생성	
	한국	유치원	3~5	부모부담	반일교육	교육부	
		보육시설	0~5	차등부담	종일보육	보건복지부	
일원 통합	스웨덴	보육시설	0~5	차등부담	교보통합	보건사회성 가족성	시간다양
연령 구분 형	독일	학교유치원	6	지소득무상	교보통합	교육부	전시설 종일제
		유치원	3~6	차등부담	//	보사복지부	중심으로
		보육시설	3세미만	차등부담	//		시간다양
	프랑스	유아학급	5	무상	교보통합	교육성	8시간 종일
		유치원	2~6	차등부담	//	보건사회안정성	
		보육시설	0~6	차등부담	//		시간다양

* 세계의 영유아보육(1995), 이영외 역
 세계주요 8개국 탁아제도와 정책의 분석(1990), 임재택
 비교유아교육론(1996), 양서원

2. 유아교육기관 통합방안의 유형 및 논의점

교개위 최종안과 관련단체들의 찬반논쟁 속에 드러난 통합방안은 대략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각 입장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본문중에 제시했던 다음의 세가지 기준을 근거로 실시되었다.

첫째, 교육과 보호기능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 근거하는가?

둘째, 아동의 욕구에 기반하여 유아교(보)육 서비스를 발전시켜온 교육집단의 기여도를 존중하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셋째, 유아교육기관의 통합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가?

구분	내용	해당단체	문제점
유보이원화	<공대위> •현행 영보법은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법이다. •복지, 내무, 교육 3개부처 협의하에 제정된 통합법이다. •아동보육사업은 정책단계에 있다. •초등학교 유아학년으로 포함시키면 된다. •유아취원률은 보육시설 취원률까지 포함 •사회주의 국가만 일원화 •유치원, 보육시설은 성격상 통합의 대상이 아님 •이원화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교개위안 마련시 보육전문가 배제 •일원화되면 보육기능 축소 •교원양성 및 임용의 혼란 •시설장 교장자격의 취득문제 •혼란스러운 행정적 과오 •관리법 제정비로 인한 혼란 <교개위 1인> •유치원에 적극 지원하면 혼란없이 점진적으로 공교육화 추진 •이미 확립된 유치원 질관리체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질 상승 •교육부가 유아교육진흥을 통해 공교육 의지표명, 추진 가능성이 높다.	공대위 교개위 1인 학원총연합회 미술 연합회	•아동양육환경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기존시행되는 보육시설은 유아교육기관으로 불인정 •기능차이를 주장하지만 보육내용 중 교육부분은 유치원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알리가 맞음 •체제고수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대상중복에 의한 예산, 행정부처간의 갈등, 동일대상을 겨냥한 중복된 사업의 비효율성 •양시설간 아동유치를 위한 갈등을 질적고양으로 위한 경쟁으로만 볼 수 있나? •보육시설은 전제가 고른 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유치원도) •일원화의 과도기 제시 없이 시도 후 나타나는 문제만 제기
연령구분형	내용상 유치원의 보육시설 포함 보육시설의 유치원 기능 포함 •장점 -모든 기관 공공성 확보 -교육과 보호서비스 질 향상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OECD 수준 조기달성 -유아교육에 관한 예산을 효율적 활용 -유아학교 일원화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 -대상아동확대, 취원률 증가, 질 확대(운영 어려움 다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해소, 기관위상 상승, 신뢰도 향상 -3-5세 중복관리 해소 -아동/학부모 요구 동시충족 -취학전 1년 5세아 무상교육의 효율적 추진 -양기관의 각종의 차등해결문제 해소	법국민연대 모임	•동일기능에 대해 한 부처가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방식의 문제와 해당부처간의 합의문제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한 역사적 책임 수행에 대한 신뢰 결여 •유아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영아보육 기회현상에 대한 대안이 없다.

구분	내용	해당단체	문제점
연령별 구분 (교육, 복지 등)	•유아교육개혁 대상 연령을 만3-5세로 제한 파악 •실행기관도 유치원, 보육시설로 한정 •한국의 유아교육실태를 거시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교개위는 교육이 개혁안의 중심이고 보호는 보조(선택)의 관점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준비정도에 의거 단기적으로는 유치원만 개혁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호개방하여 일원화한다. •담당부처, 전문가, 일선 기관장의 통합논의구조를 가지고 양 시설의 공동사업계획으로 내용적 통합부터 이루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일원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 논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교육부 확보예산은 유아교육개혁에 사용되고 보육시설은 5세아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보육료 경감예산 확보 등 보육예산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장기적 일원화는 양 부처중 어느 한쪽으로의 집중이 아니라 부처간 동등한 상태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한 통합이다. •내용상 통합이란 양 기관의 공동프로그램 실시, 통합 교사보수교육 실시 •공동체비나 적극 유치, 지원 •각 부처에서 발간된 교재, 연구성과, 모범 등을 효율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나누기 등 통합의 분위기, 동질감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 탁아소연 합회	•동일대상, 동일서비스에 준거한 보육예산 확대는 복지부 및 재경원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단기적 내용의 통합이 각 부처의 안일함이나 서로 미루면서 지연되는 경우에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어 이해관계로 인한 장기적 통합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
유치원 중심점진적 일원화	•유치원→유아학교 전환 •이외의 기관→전환을 위한 문호개방을 통해 점진적인 공교육체제를 확립한다. •국민들에게 유아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킨다. •종일반 운영에 대한 부모요구에 부응한다. •시설, 설비 확충부담을 줄여 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 발전될 수 있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체제를 확립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의무교육단계 이전의 국가인력관리체제 확립가능.	교개위 3 안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한 역사적 책임수행에 대한 신뢰 결여 •보육계에서 확보한 공공재정, 양적확충, 기능확대가 희석화될 가능성 •이외의 기관이 유아학교로 전환을 하지 않을 때의 문제 •유치원의 보호기능 보장을 위한 대안제시가 안됨
완전일원화	•유치원 보호기능 추가, 보육시설 교육기능 강화 •유아학교로 통일→새로운 교육체제 추구→공교육체제 확립 •만3-5세 관리를 단일 교육기관으로 •계층 위화감을 불식→무상교육의 혜택대상을 전 아동에게 •출발점 평등원칙 추구 •중앙정부/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되는 전제로 교육/보호의 요구에 적극적 부응 가능	교개위 2 안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한 역사적 책임수행에 대한 신뢰 결여 •보육계에서 확보한 공공재정, 양적확충, 기능확대가 희석화될 가능성 •현재의 상황과 실현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각목의 대안이 없다.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이 안되는 경우에 대안이 없다.

유아교육기관 통합방안중 논쟁의 주류를 이루는 두 입장은 "완전이원화"와 "연령별 구분형"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보육기관 및 유사교육기관들의 경우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확보를 위해 공헌해온 그동안의 기여도와 보육기관내 교육의 질을 의심하는 교개위를 포함한 기존 유치원 세력들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영구이원화(현상유지론)"를 주장한다

반면 보육과 교육기능의 상호보완적 통합발달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형"이 있다. 그런데 "연령별 구분형"은 다시 유아교육의 두가지 기능중 무엇을 중심축으로 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느냐에 따라 "교육중심-복지 보조형"과 "교육-복지 동등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유치원과 유아교육학계가 참여한 연대회의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다. 행정부처의 책임 및 역할을 제안하는 시각을 보면 교육부가 5세아 무상정책 수립 및 교사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주도하고, 유치원의 빈일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복지부 산하 보육시설의 보조적 부분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연령구분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보통합에 전적으로 합의하나 교육과 복지기능이 상호 동등한 가치로서 인정되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주장하는 연령별 구분형이 존재하는데 본회의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이 입장의 경우 일원화 형태를 기존의 양 기관중 어느 일방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형태는 이후 유아의 변화되는 요구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더라도 유아의 교육권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유아관련 정책의 평등한 발전을 촉구한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이 글에서는 통합논의에 대한 본회의 공식입장으로 "교육-복지 동등형 연령구분형 모델"을 채택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 모델의 발전경로는 위에서 제시된 또 다른 연령구분형 모델과 유사하리라 예상되지만 이 모델의 특징적 요소인 개방성과 평등성, 그리고 보편성에 따라 상이한 발전수준과 경로를 보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유아교육기관의 법적 제도적 통합이라는 최종목표 실현이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양기관의 고른 질적성장과 내용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본회는 기계적이고 종속적인 일원화보다는 이원화의 길을 연장하면서 각 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활동을 통한 질적 성장을 꾀하는 과정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적 시점에서는 아동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욕구에서 발견되는 상이

한 점이 있기에 각자 이원화 된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 온 나름의 순기능들을 발전시키고 각각의 제도 안에서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고 보육료 부담방식에서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는 방안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을 개발하는 일 교사의 전문성과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작업등 통합과 무관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진정 개혁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간 상이한 정체성을 가졌던 두 기관이 조화롭게 통합되기 위한 단계설정을 어떻게 그려 볼 것인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인지라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학계에서 심도 깊은 연구에 착수 해 주시기를 고대한다. 몇가지 단상을 밝혀 본다.

첫단계로는 상호 개방화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시설별로 시설 확충과 국고지원을 확대 하는 요구가 지속될 것이며 동시에 질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들이 도출되고 해답을 찾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 이 때에는 중앙단위 보다는 지역과 현장에서의 개방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맞게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 위한 실무자모임이나 교재교구전 공동개최, 지역 아동행사 공동주관 등이 도모되는 가운데 친목형성과 불신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각종 선행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일선현장에서 개혁부담으로 갖게 될 거부감(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변화, 종일반과 영아시설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지원방안 모색 등)을 해소할 대책을 연구 검토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내용적 통합을 이루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아동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교사양성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일원화 된 시설의 교장 및 교사자격 취득문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 및 역할분담 방식문제, 양성교육기관의 커리큘럼 문제등에서의 일원화가 추진된다면 보육기관의 불안감도 한층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교육비용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즉 두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일원화 되기 위하여는 유아교육비로 총당될 절대예산 확보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시설간 부모부담 방식과 내역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외 교육프로그램은 물론시설 및 설비기준 등의 일원화가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이런 하위체계에서의 통합과정이 모색되어진 후에는 그 성과를 모아 일원화된 법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거칠게나마 본회가 구상하는 통합추진 방향과 방안을 그려보았다. 그동안의 통합논쟁은 5세아 무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여부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과 결합되어 이해집단과 관련부처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주장이 난무하였으나 앞으로의 논의는 유아의 교육권 확대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제시의 과정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박금희 · 본회 정책개발위원

지난 10월24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개혁방안' 발표 후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유아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정책의지는 환영할만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사방에서는 어서 입장을 밝히고 동참하라고 독촉이었다. 좋기는 한데, 뭔가 탐탁치 않은 것은 왜일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입장표명과 행동보다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지금까지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해왔는데! 그까짓 몇 개월의 신중함이 뭐가 문제일까.' 진행단계에서의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한국보육교사회(당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입장이었다.

교육개혁위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나 뭔가 해결되기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의과정으로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진실로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개혁은 어떤 모습인지와 현재의 조건으로부터 교육개혁위의 안이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밝히려면, 오히려 현재의 쟁점보다는 거시적인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에 대한 스케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조금하게 제시된 메뉴에서 우리의 입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원칙적이고 거시적인 논의 방향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우선 공교육, 무상교육, 의무교육, 보호·교육권 등에 대한 개념고찰과, 이의 실행에 있어 육아비용의 부담, 국가의 비용보조, 전달체계, 질의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한계를 느꼈다. 즉, 원칙과 이상에 대한 논의는 점점 우리의 발을 땅에서 멀게 하였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은 다른 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다음은 각 나라의 유아교육 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이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고찰이었다.

각 나라의 교육개혁의 시기와 정책선택을 살펴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흡사한 역사적 경로를 갖거나, 그 개혁방향이 건강했던 나라로 대상을 좁혀 비교·연구하기로 하였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개혁 경로를 밝히는 것이었으므로.

하지만 문헌연구의 한계로 다시 대상국을 선정하는데에는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이라는 단서를 달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미국으로 좁혀졌다(처음에는 아시아권에서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도적으로 계획해보기도 했지만).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토론회조차도 우리의 입장을 정하기 위함이 기보다는 보다 많은 의견을 모아 우리의 논의의 방향을 수정·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육교사회와 '한국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제고찰'의 주제발표와, 사례 발표로 윤선영 선생님의 '독일의 보육현황'에 대한 소개를 주요하게 다룬 후, 김종해 교수님, 김경애 교수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의 송대현 선생님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한보편을 중심으로 하는 공대위안의 문제점과 범국민연대모임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연구를 주요하게 주장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발표했다. 즉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100년사에서 유치원의 소극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판과 현대사회의 보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절박함, 그리고 '보육'계의 건강한 성장의 공헌도를 강조하면서 "교육-복지 동등형 연령구분형 모델"을 거론하였다. 용어에서 보여지듯, 주무부서에 따라 교육이 중요한가, 보호가 중요한가에 대한 다툼기식의 집중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교육이라는 사실에서 어떻게 전체 아이들에게 고른 기회, 출발선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서 연령별 발달특성에 맞춰 요구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구분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많은 부러움과 함께 모를지기 저러한 자세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국가의 책임, 서비스의 다양화, 양질의 교육환경 등 전반적으로 무서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소개하면, 출산·육아휴가와 보육비의 지급, 정책결정을 위한 신중한 조사, 학교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리가 흔히 보육제도를 논의할 때에는 이미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그러나 한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케 하는 그 아동의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모성보호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주 간과한다. 이 지점을 발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에는 육아비라는 것이 있다. 이도 이전에는 자녀수와 출생서열에 따라 연간 일정

액을 지급하였으나, '어린이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세법 마련이 의무화되고 있다고 한다. 즉 아동의 생활비, 특별비, 집세, 난방비 등을 합한 것을 근거로 획일적인 자녀금을 정했다고 한다. 또한 조사사업을 중시하는데 한 예로 윤선영 선생님이 유학하던 시기에 시작한 조사사업이 아직도 검증 단계에 있다고 한다. '비록 구체적인 실행방도는 없지만 개혁안이 발표된지 벌써 7개월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논의나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우리 현실이 답답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학습의 독자성 인정부분이다. 즉 유아교육기관은 "학교와 같은"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쓰기와 읽기 등을 배우는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 외에도 혹시 토론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다면, 이후 발표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토론자로 참석하신 김종해 교수님은 먼저 의견수렴의 여지도 없이 수정안을 복수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불신을 표집고, 몇가지 과제를 던지셨다. "EDU-CARE"라는 것은 이미 신조어가 아니다. 현재의 보육을 담을 수 있는 신조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교육'과 '보육', '보호'가 이 문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합성을 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놀이와 생활이 바로 교육이라는 의미의, 아이의 생활을 담은 '용어', 어찌 보면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였다. 또한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육-복지 동등형'도 약하다, '복지중심 교육보조형'에 대한 검토의지는 없는지 주장하셨다.

김경애 교수님의 경우 개혁안이다. 주제발표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개혁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셨다. 다분히 유치원 살리기로 비춰지는 개혁안에 대해 교육개혁에 앞서 사회역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유치원의 반성과 비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왜 5세아 무상교육인가?"를 제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진정 출발선 평등의 원칙을 실현코자 한다면, 아직 발달지원적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이들이 있다는 점과 아동복지차원에서 시각을 0-5세의 전체아동에게 돌려 진정한 '출발선 평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마지막으로 토론하신 송대현 선생님은 한국보육교사회에 서운한 마음을 먼저 전달하셨다. 5세아 무상교육과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갖는 긍정성을 실분 살려 이를 기초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하물며 범국민연대모임과 한국보육교사회의 안이 별로 다르지도 않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또한 이후 유아교육의 개혁에서 중요한 이슈인 질적인 발전은 교사운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때 한국보육교사회의 참여는 더욱 의미있고 요구된다고 주장하셨다.

급하게 준비된 토론회이지만 마치면서 우리의 과제가 보다 선명해짐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의 활동이 참으로 옳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제정되어 운영된지 채 7년밖에 안된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아교육계가 한치 앞의 발전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반정의적인 정책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지금 당장 한국보육교사회가 개혁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칙과 정의를 찾아나가는 자세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견지하려는 자세는 분명 이전에 현신적이고 과학적인 보육운동으로 현재의 보육제도를 이룩한 것처럼 이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당장 토론회에서 보여지듯 우리 주위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기를 요구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발달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유아교육체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촉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곁에 있는 교사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더욱 왕성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나 늙어지지 않고!

보육의 질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유아보육프로그램 질분석

남명자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본 글은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서울민보련의 연구의뢰를 받아 진행한 『서울시 민간·가정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질평가』 중 「유아보육프로그램 질분석」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I.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 보육시설은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런 양적 팽창은 다원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현대 산업사회 핵가족의 자녀양육기능 약화를 보완해줄 사회적 기관의 필요가 절박하였기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서울지역 민간보육시설의 수는 거의 과포화상태라 할 수 있어 원아모집이 잘 안되니 보육시설에 거리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본 글은 지면관계상 발표내용중 연구결과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보육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한 도구는 이은혜·이기숙(1996)이 개발한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를 민간보육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사용하였다.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아보육프로그램 평가척도 구성요소 <()안은 문항수>

▶ 일과계획 (11) : 활동간 균형

- ▶ 교육과정 (23) :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의 교육내용
- ▶ 교사-유아 상호작용 (9) : 긍정적 지지적 개별화된 관계
- ▶ 물리적환경 (26) : 실내외 설비의 적합성, 다양성, 공간의 배열, 구성, 활용성, 교재교구
- ▶ 영양, 건강, 안전 (16) : 간식, 급식, 건강 및 안전 지도.
-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평가 (4)

II. 본론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유아보육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수준 (4점 척도) - 표 1.

유아보육프로그램 구성요소	평균치
일과계획	3.16
교육과정	3.15
교사-유아 상호작용	3.38
물리적 환경	3.13
영양, 건강, 안전	3.3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평가	2.94
총합	3.20

■ 일과계획 실태 - 표 2.

80% 이상 잘 실행되고 있는 것	30%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 연간·주간·일안을 작성하고 연관성을 가정 • 유치원 교육과정 5개영역이 고르게 진행 • 정적/동적 활동의 균형	• 실내/실외 활동의 균형 • 교사주도/유아주도 활동의 균형

■ 오후간식 이후의 일과 - 표 3.

오후간식 이후의 일과내용	%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오전활동의 심화과정이나 오후 교육활동 고유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실행	36.4%
오전 교육활동과 관계 없이 실외놀이나 자유놀이, 학습지 등을 주로 한다.	40.9%
사전 교육적 계획에 의해 비디오나 T.V. 시청	14.2%
교육적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인기있는 비디오나 T.V. 시청	8.5%

■ 낮잠 시간의 수준 - 표 4.

낮잠시간의 수준	%
취침전의 생활습관지도(옷, 침구 정돈 등)와 낮잠시 들려줄 음악이나 이야기, 자지 않는 유아들을 위한 활동 등을 교육계획 할 때 항상 고려하고 실행.	18.1%
낮잠시 들려줄 음악이나 이야기 등은 그때그때 어린이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며 자지 않는 유아들을 위해서는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	68.1%
자지 않는 유아도 끝까지 누워있도록 종용하며 항상 똑같은 음악을 들려준다.	5.6%
자지 않는 유아도 끝까지 누워있도록 종용하며 음악이나 이야기를 전혀 들려주지 않는다.	8.1%

■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표 5.

80% 이상 잘 실행되고 있는 것	30%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 안전규칙을 포함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 창의적 미술활동 - 수 개념 활동 - 이야기 나누기 - 다양한 소근육 활동 - 발달수준에 따른 융통성	- 다양한 실물자료나 현장체험을 통한 탐색활동 - 총체적인 읽기, 쓰기 지도 - 분류활동 - 물, 모래 놀이 - 대근육 신체활동 - 창의적 동작활동 - 극놀이 활동

■ 교사-유아 상호작용 실태 - 표 6.

80% 이상 잘 실행되고 있는 것	30%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 수용적 분위기 - 유아 스스로 참여하도록 격려	비판, 꾸짖기, 위협 등의 부정적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칭찬이나 격려 등을 주로 사용.

■ 물리적 환경 실태 - 표 7.

80% 이상 잘 실행되고 있는 것	30%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4개 이상의 흥미영역 운영 - 수, 언어, 조작, 미술, 블록, 기본생활습관지도 자료	- 흥미 영역의 배치 및 관리 - 음료, 과학, 극놀이, 대근육활동 도구 - 계단의 폭, 난간설비, 책걸상의 크기가 유아와 맞음

■ 영양, 건강, 안전 - 표 8.

80% 이상 잘 실행되고 있는 것	30%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 식습관 및 청결 지도 - 환경의 위생상태	- 주방기구 정기적 소독 - 당분의존도가 높은 과자류는 거의 제공하지 않음 - 건강검진과 건강진단서 발급 -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수립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평가 - 표 9.

80% 이상 잘 실행되고 있는 것	30%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년 2회 이상 부모면담	- 특수아나 문제행동아를 위한 자문 - 교사의 자체 평가 - 유아 대상의 수시 평가.

■ 유아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표 10.

프로그램 구성요소	일과계획	교육과정	교사유아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영양 건강 안전	가정 지역 연계 평가	총합
변인							
시설유형			** (.009)				
교사연령		** (.007)	** (.004)	** (.014)			
교사학력		** (.020)					
교사경력	** (.012)	** (.000)		** (.001)		** (.005)	** (.004)
재교육참여		** (.010)		** (.015)		** (.036)	** (.029)
정기적 회의구조	** (.001)	** (.002)		** (.000)	** (.003)	** (.002)	** (.000)
구성원간 의사 소통이 원활한 시설>원활하지 못한 시설	** (.000)	** (.000)	** (.005)	** (.000)	** (.005)	** (.002)	** (.002)
급여수준	** (r=.28)	** (r=.28)		** (r=.25)			** (r=.33)

(보는 방법 : 가로축과 세로축을 교차시켜 좌표 읽듯이 읽는다.)

예- 놀이방이 어린이집보다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질이 더 좋다(의의도 수준은 .009)

III.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교사주도 활동과 유아주도 활동의 불균형 문제나 흥미영역의 질적인 배치 및 관리문제, 실물자료를 가지고 관찰 탐색활동을 하는 기회의 부족, 다양한 극놀이 공간과 도구의 부족, 다양한 소재의 창의적 동작활동의 부족, 총체적 읽기 쓰기 지도의 부족, 평가활동의 부족 현상 등은 현장과 밀착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는 매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간도 20-40시간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시설의 일반적 배경에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는 11%에 불과하고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교사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에는 교사 재교육이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본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3가지 종류의 연수가 있어 교사로서의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반연수, 상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장기간동안 현장을 떠났다가 복직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는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전문성 고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급을 위한 자격교육 등 보육교사의 재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설장을 위한 재교육체제 마련도 시급하다. 시설장과 교사들간의 회의구조가 있고 시설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보육의 질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시설장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보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설장 재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시설장, 아동, 부모가 함께 상호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를 위한 직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교사중 고졸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보다 내실있고 질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학력이 높은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질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중심의 1년 단기간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보육의 질향상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급 전임교수가 거의 없어 교육생의 개별적인 상담과 실습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강의실 부족으로 지나치게 높은 교수:학생 비율 등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원 운영체제를 내실있게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용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중소규모의 민간보육시설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보육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했기 때문에 전용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시설들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보육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실내활동과 실외활동의 불균형 문제 즉 실내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적

극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공간을 최대한 교육자원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나, 자원봉사인력의 활용 방안,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실내공간의 재조직(대근육 신체활동을 위한 실내 공간과 도구의 확보 등)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 확산되어야 한다. 양질의 보육이란 단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협의의 교육프로그램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아동-교사-가정(지역사회포함) 이 삼자가 파트너쉽을 갖고 아동 보육활동을 통해 상호간에 성장 발달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기존에 나와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사회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지역병원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등 지역내 시설을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생겨나야 할 것이다. 유치원 같이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장학지도하는 것보다 민간보육시설은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 맞는 질관리 체제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적 시설이나 설비 문제(계단의 폭, 높이, 난간설비, 책걸상의 크기 등이 유아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점, 오르기·내리리기·균형잡기와 같은 대근육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과 도구가 부족한 점)는 이런 질관리 체제에서 평가 받고 그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보육의 질과 월급여수준과의 관계가 유의있는 정적 상관관계($r=.33$)로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에 대한 처우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서울 민간보육시설의 교사급여수준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시설은 26%정도이다. 이런 수준은 일일평균근무시간이 10-12시간에 달하고 학력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60% 이상인 수준과 형평이 맞지 않고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최소한 국공립시설의 급여수준과 균형이 맞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부모모임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자치단체와 기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이고 체계적이되 설문지 형식으로만 질을 평가하지 말고 직접 연구자가 관찰하며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로서만 질을 평가했기 때문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관찰 평가가 이루어져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대상을 넓힌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소속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특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교육

통합교육의 효과

윤선아 ·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특수교육 책임교사

윤선아선생님은 서울대병원 특수교육교사를 하시면서 유아기관에서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통합교육은 더 절박하여 보육시설에서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지난호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교육에 대한 윤선아님의 글을 실습니다. 현장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차례 --

1. 통합은 왜 해야 하는가?
2. 통합교육의 효과
3. 장애아동의 선별/진단/배치
4. 통합교육 활성화 정책
5. 통합교육프로그램
6. 통합교육의 사례
7. 통합교육의 과제

통합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의 반대 개념인 분리교육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서로에 대해 보고 배우고 느끼

면서, 사람이 가지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다양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가지는 기회, 다양한 교육 경험을 가질 기회, 편견 없이 사회구성원을 바라볼 줄 아는 사회적 인식을 배울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장애아동이 통합되어 교육받는 것이 각 장애아동의 현재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면서 특수교사들은 장애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의뢰했을 때,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때 일반 유아교사들의 장애아동 거절이유는 대체적으로 장애아동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아동이 피해를 볼까봐,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을 따돌릴까봐, 장애아동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특별할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일반아동의 자모들이 불평을 할 것 같아서, 다른 장애아동은 모르겠는데 이 아동은 말을 못하니까(그외의 그 아동만이 같은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지원이 없으므로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통합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걸림돌들이 생기는 이유중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교육정보의 부족이라는 근본적 이유도 있지만,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통합시켰을 때의 효과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배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여기서 여러 연구들이나 현장 경험들 속에서 나타난 통합의 효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은 아동의 장애 기준에 따라 정신지체, 정서장애, 자폐, 언어장애 등 장애의 진단명을 가지고 있다. 진단명은 장애명으로 아동들을 낙인찍고 분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아동별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단 이러한 발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들은 진단으로 알 수 있는 주문제(정신지체라든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성 장애라는 2차적 문제를 중복적으로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Guralnick & Weinhouse, 1984; Spicuzza, 1991). 이는 아동의 1차적 장애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아 조기교육에서 사회성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때 통합을 통해, 또래 아동으로부터 배우는 사회성 기술은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다(Odom, 1991; Strain, Shores, & Kerr, 1976; 이소현, 1992).

즉 먼저 사회성 기술발달의 면에서,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에게 사회적 시작행동을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친사회적 반응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장애아동의 사회적 시작행동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 장애아동의 시작 행동을 촉진시키는 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Strain, 1984; 윤선아, 1995).

“연경아, 오늘은 내가 꼬마 선생님이야. 책 볼래?” 승미가 동화책을 연경이 앞에 펼쳤다. “결혼식놀이 하고 싶니?” 옆 옷걸이에 걸린 하얀 드레스를 만지는 연경이 얼굴을 쳐다보며 승미가 물었다. “그럼 니가 공주님하고, 나는, 나는... 공주님 엄마야.” “공주야 빨리 드레스 입어야지.” “연경아 손 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자, 웃으면서 걸어보세요.” 연경이가 팔을 저으며 “헤헤헤” 웃으며 달아난다. “결혼식에서는 걷는거야” 승미가 웃으며 쫓아간다(함께 배워요, 서울 장애인 복지관, 1997).

위 사례에서 승미는 연경이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시작하고 연경이는 승미의 행동에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교육현장을 관찰하다보면 위의 사례 외에, 일반아동이 놀이를 시작하는 행동에 적절한 언어로 반응은 못해도, 일반아동이 제시한 장난감으로 옆에서 놀거나, 즉시 반응은 안보여도 일반아동이 놓고 난 장난감을 가서 만져보고 모방해보는 등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다. 통합교실에서 일반아동과 경도 정신지체아를 통합시켰을 때, 장애아의 놀이유형은 협동놀이와 평행놀이가 증가하지만 장애아들만의 분리교육에서는 놀이유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Knapczyk와 Peterson의 연구(1976)와 또래와의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아동의 또래와 관련된 사회적 행동과 좀더 구조적인 놀이의 빈도가 더 많아짐을 밝힌 Guralnick과 Groom(1988)의 연구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통합환경에 있는 장애아동은 이처럼 사회

적 놀이를 조금씩 경험하고 발달해가며, 분리 환경에 있는 장애아동보다 또래 아동이나 어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Smith & Greenberg, 1981).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예상외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기 신뢰감을 습득할 수도 있으며(김용주, 1987),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거부감, 이질감을 겪기 보다는 상호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소속감과 수용감을 증진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기도 한다(Johnson & Johnson, 1980).

행동적 측면에서 장애아동은 통합환경에서 부적절한 놀이행동을 감소시키기도 하며(Grainick, 1980),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잘 일반화시켜 생활한다(Strain, 1984). 인지 발달 면에서 역시, 통합은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해줌으로서 인지 발달을 증진시켜주거나(김광웅, 1990), 관찰학습,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통해(김용주, 1987), 인지 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

결국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은 일반아동과의 또래경험을 통해 장애아의 사회성 발달(Grainick, 1981)은 물론, 장애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Jenkins, Odom, & Speltz, 1986)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일반아동에게는...

사실 통합교육은 장애아뿐 아니라 일반아에게도 효과를 가져다 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일반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많다.

일반아동의 언어행태를 관찰한 결과, 먼저

장애아동과의 통합이 일반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몇가지 연구를 보면, Guralnick(1976)은 통합교육에서 장애아와 장애아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줄어들어 적절한 언어 사용이 증가하였고, 일반아동도 장애아동의 수준에 맞는 언어 사용을 하게 되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의 언어 발달에 향상을 가져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행동면에서도 장애아 14명과 일반아 15명의 통합집단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모두 일반아동의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Peterson, 1977). 그외에도 통합교실에서 장애아동으로 인해 일반아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많이 있으며(Odom, Deklyen & Jenkins, 1984; Strain, 1984), 특히 Nordquist, Twardosz와 McEvoy(1988)의 연구에서는 자폐아동들과 일반아동들과의 접촉에서 일반아동은 자폐아동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교사나 부모의 우려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통합유치원을 보냈던 두 일반아동의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이 예들의 오빠인 승현이도 같은 유치원에 보냈었는데 처음엔 통합교육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승현이가 배워오는 협동심이나 봉사정신을 보면서 통합교육의 장점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어요.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통합교육은 일반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아동의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배려로, 일반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증가되고(Nordquist, Twardz, & McEvoy, 1986), 일반아동들은 통합교육을 받기 전보다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Esposito & Peach, 1983). 즉 일반아동은 장애아동과의 통합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람마다의 개인차를 인식하고,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충신대 부속 유치원의 장애아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보고(1995)에서 제시하는 일반아동에게 있어서의 통합교육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에 대하여 성인들로부터 얻은 부정적인 이해와 인식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개선시키며, 인간의 개인차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장애아와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장애아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정서적, 사회적 조망능력이 발달한다.

셋째, 사회적 친숙효과도 일반아와 장애아의 상호간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된다(김광웅, 1990).

네째, 일반아는 장애아와의 통합 속에서 장애아들에 대해 상호협력자, 모델, 반영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해서 상대방을 돕는 마음, 양보심, 배려하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함께 느껴보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들을 보다 다양하게 익히게 된다(서봉연, 1986).

다섯째, 도움이 필요한 때와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Morgan & York, 1981).

여섯째, 자신의 지식을 장애아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보다 확실하게 다듬는 기회를 갖게 된다(서봉연, 1986).

통합교육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장애자녀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고 수용하여 장애아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으며, 일반아동의 부모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갖고 자녀의 사회적 성숙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녀 교육을 지향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아동을 관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1989),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배울 수 있다(Hallahan & Kauffman, 1988).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부담은 물론, 분리교육에서 야기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합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통합교육의 상당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가지 사례가 많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통합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건강

이유식 먹이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공 ·

젖을 땔 때 참고사항

모유를 언제까지 먹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선진국에서는 4-12개월까지 먹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18-24개월까지 먹이도록 추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소 4-6개월은 반드시 먹이고 그후 12개월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나 가능하면 오래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젖을 먹던 아이에게 갑자기 젖을 끊고 우유를 먹이면 아이가 우유를 먹지 않고 오직 젖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유병 자체를 빨지 않고 자지러지게 울거나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엄마젖꼭지에 익숙한 아이에게 갑자기 고무젖꼭지를 입안에 넣게 되면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젖꼭지 혼동현상 때문입니다.

엄마젖꼭지와 우유병젖꼭지가 비록 비슷하게 생겼으나 빠는 데에는 서로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 한쪽에만 익숙해졌던 아이에게 다른 것을 입에 물어주었을 때 아이가 잘 빨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유를 먹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젖이 잘 나오는 시기부터(보통 1개월) 고무젖꼭지를 주거나 1주일 한번씩 우유병 빠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으로 우유병으로 너무 자주 주면 우유병이 빨기 쉬워서 젖을 잘 안 빨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유병을 빠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젖을 끊게 되면 아이가 며칠씩 안먹고 속치질 수 있으므로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아이가 배고플 때 우유병으로 먹여보는 방식으로 점차 횟수를 늘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젖을 땔 때는 가슴을 기저귀 같은 천으로 압박해서 짜서 아이에게 젖을 빨리지 말고, 젖이 적게 나오는 약을 복용하면서 찬 찜질을 하게 되면 2-3일 내에 젖이 안나오게 됩니다.

젖을 짜지 않아서 젖이 너무 심하게 붙은 경우에는 1번 정도 짜주는 것도 좋으며 젖을 끊는 약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1주일 정도 복용해야 하는데 부작용으로 두통, 구역질,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일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에 대하여

아래는 대한소아과학회의 영양분과위원회에서 이유식의 방법에 대해 추천하는 글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1) 이유식(보충식)이란?

이유식은 영양면으로 모유나 분유에서 유아식으로 이행하는 과정, 기능적으로 빨아 삼키는 행동에서 씹어 삼키는 행동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섭취하는 고형식을 말한다.

2) 이유식의 필요성은?

아기가 생후 4-6개월이 되면 빠른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발육과정에서 알맞는 자극을 주어야 한다.

모유의 양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단백질, 무기질 등 열량이 풍부한 고형식의 보충이 필요하게 된다. 이 시기는 영양면에서 절대 필요할 뿐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중요하다.

3) 이유식의 시작시기는?

이유식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대개 생후 4-6개월경으로 체중이 6-7kg 정도 되는 시기이다. 수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어른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때가 적당한 시기이다. 미숙아는 정도에 따라 1-2개월 늦추어 시행하여도 좋다. 그러나 아기의 신경발육, 신기능 및 소화능력에 따라 개개인에 알맞게 계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이유식의 단계는?

이유는 생후 4개월에서 1세에 걸쳐 이루어지며 편의상 이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1) 이유초기 :

이유시작 후 1-2개월동안 즉 생후 4-6개월로 하루에 한번 미음, 달걀노른자, 야채미음, 과일즙 등 반유동식을 숟가락으로 주어 모유나 분유와의 음식에 습관을 들이는 시기이다.

(2) 이유중기 :

생후 7-9개월로서 묽은 죽, 으갠 야채, 으갠 생선, 달걀 등의 반고형식을 하루 두번 준다.

(3) 이유후기 :

생후 10-12개월로 죽밥, 잘게 썬 야채, 다진 고기 등 고형식을 하루 세번 주게 되며 이유식이 영양의 주공급원이 되고 모유나 분유는 감량한다. 만 1세가 이유 완료시기로 어른과 같이 하루 세끼 고형식을 먹고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준다.

생선, 달걀, 고기 등의 단백질로 영양분의 약 1/3을 섭취하고 그의 5가지 식품군을 고루 섭취하여 모유나 분유는 하루 400cc 정도 준다.

5) 이유식의 재료는?

이유기의 아기는 신체 및 두뇌 발달이 왕성하므로 각 식품이 지닌 영양소를 고려하여 풍부한 영양가를 가진 식품들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공급해야 한다.

(1) 곡분류 :

곡물이나 빵, 국수, 감자 등의 탄수화물은 높은 열량을 공급한다. 이유단계에 따라 초기에는 미음, 중기에는 죽, 후기에는 죽밥 등으로 조리하며 수분의 양과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팥죽이나 으갠 감자를 줄 수도 있고 이유 말기에는 국수를 잘게 부수어 줄 수 있다.

(2) 과일류 :

계절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고 맛이 좋아서 가미하지 않아도 잘 먹는다. 이유초기에 즙을 내어 먹일 수도 있지만 수저로 긁거나 강판에 갈아서 주는 것이 좋다.

(3) 야채, 콩류 :

비타민, 무기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섬유질이 많아 배변을 수월하게 한다. 이유초기에는 삶아서 체에 걸러 사용하고 이후에는 삶아 으개거나 작게 잘라서 준다.

(4) 달걀 :

흰자는 최고의 아미노산 식품이고 노른자는 철분, 비타민이 많다. 유화지방으로 소화가 잘된다. 완숙된 달걀을 사용하며 이유초기에는 노른자만 주고 이후에는 달걀 전체를 준다.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아기는 흰자를 이유후기에 시도한다.

(5) 생선 및 육류 :

단백질, 비타민, 철분의 주 공급원이다. 6개월 이후에 주는데 곱게 다져서 다른 음식과 섞어서 준다. 닭고기는 쇠고기보다 소화가 잘되고, 쇠간은 철분이 풍부하다. 생선은 육류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나,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이 많아 변질되기 쉬우므로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 소세지나 햄 등은 식품첨가물과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좋지 않다.

(6) 유제품 :

요구르트는 우유를 살균후 유산균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 소화가 잘되며 우유를 싫어하는 아기에게 특히 좋다. 치즈는 소화가 잘되고 지방, 비타민, 철분 등 영양가가 많다. 생우유는 이유용 조제분유보다 간편하기는 하나 철분이나 비타민이 부족하므로 이유식으로 대부분의 영양섭취가 가능한 1세 전·후에 주는 것이 좋다.

6) 이유식을 주는 기본원칙은?

① 이유초기에 미음같은 반유동식을 숟가락으로 사용한다.

시판중인 이유식을 이용하는 경우 분유와 함께 우유병에 넣어 먹이지 말고 미음같이 개어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처음에는 혀로 밀어내는 수가 있는데 이는 음식을 싫어한다기보다 받아먹는 방법에 익숙치 않아서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면 잘 먹게 된다.

이유중기에는 암죽, 두부같은 부드러운 고형식, 이유후기에는 죽밥 등의 고형식으로 점차 진행한다.

② 이유식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되 처음에는 오전 10시경이 좋다. 모유나 분유를

수유하기 전에 먼저 준다.

③ 이유초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지 말고 한번에 한 가지 음식을 준다. 양은 한 숟가락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량한다.

④ 새로운 음식을 첨가할 때는 약 1주일 간격을 두고 시행하며, 설사, 구토, 피부발진 등이 나타나면 중지시킨다.

⑤ 위생적으로 조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소금, 설탕 등의 조미료는 첨가하지 않는다.

⑥ 이유식은 증탕에 의해 채운 정도로 덥히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자레인지는 음식이 너무 뜨겁게 데워지거나 고루 데워지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⑦ 한번에 먹는 양이 적으므로 가족의 식사 준비중 일부를 아기에게 맞게 조리하면 좋다.

⑧ 이유식은 식생활의 틀을 만드는 기본이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주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게 한다.

⑨ 이유후기에는 고형식을 주게 되는데 이때 소세지, 당근, 팥콩 종류는 사레가 들리기 쉽고 기도 내로 흡입되어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8) 이유초기(생후 4-6개월)에 이유식 진행방법은?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일)
쌀미음(숟가락)	1	1	1	2	2	3	3	4	—	—	5-6	숟가락까지	증량		
달걀노른자								1	1	2	2	3	—	—	증량
야채미음(숟가락)											1	1	2	2	3

9) 이유표?

	월령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횟수	모유나 분유	4회	3회	2회
	이유식	1회	2회	3회
시간	모유나 분유	6,14,18,22시	6,14,22시	11,16시
	이유식	10시	10,18시	8,13,18시
이유식종류	곡류	미음류	죽류	죽밥류
	야채류	거른 것	으갠 것	잘게 자른 것
	달걀	완숙노른자1/4개	완숙 2/3개	완숙 1개
	생선, 고기류	파즙	끓은 것	잘게 다진 것
	과일류	파즙	끓은 것	잘게 다진 것

주) 1. 이유초기에는 이유식 시도후 부족한 양을 모유나 분유로 대체한다.

2. 유지방(버터, 마가린)은 이유중기부터 적당량을 포함시킨다.

3. 소금, 설탕등의 조미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4.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는 달걀노른자를 이유후기에 시작한다.

5. 이유후기의 이유식에는 5가지 기본식품이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6. 생우유는 이유 후기말에 시작한다.

이유식에 대한 문제점

1)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

신생아들의 장은 미성숙해서 엄마젖이나 분유 이외의 음식을 먹이게 되면 소화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4-6개월이 되면 장이 성숙하기 시작해서 일반음식을 먹여도 소화흡수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성장이 빨라서 영양이 많이 필요하므로 젖이나 분유 이외에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식을 너무 일찍 1-2개월에 시작하면 설사나 알레르기 발생이 높고, 너무 늦게 7개월 이후나 시작하면 영양 및 성장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4-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미숙아인 경우에는 1-2개월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유식을 시작할 때 가지수

아이의 장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한가지 음식으로 시작해서 아이가 잘 소화시켜내는지 반응을 살펴보고 만일 이상이 없으면 1주일후에 또 다른 음식을 조심스럽게 첨가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한가지가 아니라 2-3가지를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여러가지 음식을 먹이게 되면 이유식으로 인해 설사, 구토, 변비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음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 향후 이유식의 선택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한가지로 시작하고 이상이 없으면 또 한가지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해주어야 하며, 혼합으로 먹이려면 한가지씩 먹인 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3) 이유식을 먹이는 방법

이유식은 액체음식에서 고형식으로 가는 훈련과정이므로 이유식을 먹일 경우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유식을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면 먹일 당시에는 손쉽게 먹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유시기가 끝나고 밥을 먹여야 하는 시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우유병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유병을 떼려고 해도 아이가 우유병만을 고집하게 되어 우유병을 떼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밥이나 기타 음식을 전혀 먹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유 초기부터 반드시 수저로 떠 먹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유식을 시작할 때 양

이유식의 양은 처음에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는다고 많이 먹어서 퉁퉁하게 만들려는 욕심으로 먹는 만큼 다 주게 되면 아이가 위장에 부담을 느껴 구토, 설사, 또는 이유 모르게 보채는 원인이 되어 향후에 이유

식을 지속적으로 먹이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첫날은 한 숟가락, 둘째 날은 두 숟가락으로 점차적으로 먹이는 양을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5) 달걀을 처음 줄 때 방법

이유식에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일찍 먹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빨리 주면 좋은 것으로 알고 2개월부터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영양적으로 아이에게 도움도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3-4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사용할 때에도 흰자나 달걀 전체를 먹이는 경우가 있고, 반숙하거나 심지어 후라이해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달걀을 처음 사용할 때는 반숙이 아니라 완숙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6) 이유식을 뱉어냈을 때 대책

이유식을 처음 먹일 때 잘 받아먹기도 하지만 25% 정도에서는 잘 받아먹지 못하고 혀로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이유식을 싫어한다기 보다는 이유식을 받아먹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일후 같은 이유식을 시도했을 때 잘 받아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처음에 안먹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며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1주일 후에 다시 한번 이유식을 먹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이유 완료시기

아이가 돌이 되어 이유 시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주식이 되어 많이 먹이는 경우가 있고 컵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유병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서도 계속 우유를 먹이게 되면 아이는 우유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영양가가 많은 고형식을 적게 먹게 되며 빈혈 등으로 인하여 더욱 밥을 안먹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돌이 되면 성인처럼 밥을 하루 세끼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우유나 기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유초기부터 이유식에 대한 세심한 노력과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기에 생우유를 먹일 수 있으나 하루 500cc 이하로 먹이는 것이 좋으며, 우유병으로 먹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유만 먹고 밥은 안 먹는 아이 - 우유병 떼기

아이가 돌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유 이외에 밥이나 다른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액체음식에서 고체음식으로 이행하는 이유식의 훈련단계가 잘 안된

아이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영양의 불균형과 함께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발생하면 잘 먹지 않게 되고 잘 먹지 않으니 빈혈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아이의 성장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돌이 되면 우유는 간식으로 조금씩 먹이고 주로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이유시기에 수저로 떠 먹거나 컵으로 먹는 등의 훈련 단계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돌이 지나서도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우유병만을 고집하는 아이는 빠른 시일 내에 우유병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아이에게 우유마저 끊어버리면 먹던 우유마저 못먹게 되어 혹시 영양결핍을 초래하지 않나 걱정하게 되는데 만일 아이의 요구대로 계속 우유병으로 먹이게 되면 오히려 오랫동안 우유병만을 더 고집하게 되고 우유로 배를 채우다 보면 포만감 때문에 더욱 밥을 먹지 않게 되어 악순환만 계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돌이 지나서도 우유병만을 고집하는 아이는 우유병을 끊어야 하며, 방법으로는 우유병을 집안에서 아주 치워 없애서 아이가 아무리 울고 보채도 우유병을 주지 않는 것인데 며칠씩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고 보채고 축 처지다가 결국은 아이가 지치고 배가 고파서 먹게 되는 혹독한 방법으로, 아이나 얼마나 심한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 방법으로는 우유병으로 물을 먹이는 횟수를 늘어가면서 나중에는 우유병으로는 물만 주게 되어 우유병은 맛이 없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해서 아이가 차츰 저절로 우유병을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안먹을 때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고 엄마들이 물어보는 말 중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건강상태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주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이든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아이가 퉁퉁하고 약간 살찐 모습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요즈음 아이들은 오히려 많이 먹고 퉁퉁해서 소아비만 등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적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는 거의 없으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은 본능적으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밥은 적게 먹더라도 잘 뛰어놀고 특별한 병도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병이 있어서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잘 먹지 않는 것 이외에 다른 이상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증상이 잘 먹지 않는 경우는 병적인 원인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인 상태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더 많이 먹이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어 아이가 잘 먹지 않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밥먹는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마다 먹는 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가

밥을 잘 안먹으려고 할 때 절대로 혼내거나 싸우거나 강제적으로 먹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므로 식품의 선택, 요리방법, 간식 등 전반적인 식생활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식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똑같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요리한 것을 잘 먹는지 살펴봐서 아이의 욕구에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반찬을 놓고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고 혼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식사전에 먹는 간식은 아이에게 배고픔을 없애주고 단맛 때문에 밥은 맛이 없는 귀찮은 것이 되므로 반드시 간식은 적절한 시간에 주어야 하며 너무 자주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단 아이가 밥을 잘 안먹는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잘 먹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시간 또한 아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빨리 밥을 잘 먹게 하는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되어 한약이나 비타민 또는 기타약을 먹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잘 먹게 하는 약들은 일시적 밥을 잘 먹게 할 수는 있으나 약을 끊게 되면 다시 밥을 안 먹게 되며 무엇보다도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을 먹이는 아이도 많이 있으나 빈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도움이 안되며 빈혈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잘 먹지 않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일단 병원에 방문하여 질병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고 질병이 아니고 건강한 것으로 판명되면 아이에게 잘 먹도록 너무 강요하지 말고 식단의 선택등의 주위 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마음에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돌 전후에 잘 먹지 않는 아이도 있으나 이 시기에는 전과는 달리 성장속도가 떨어져 몸무게도 잘 늘지 않고 먹는 것도 줄어드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발달현상으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그대로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식에 대하여

아이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든 음식을 고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음식만 좋아하고 다른 음식은 잘 먹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엄마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좋아하는 까다로운 식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아이에게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아이의 식생활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대부분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편식은 아이에게 좋은 식생활 습관은 아니지만 너무 편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떤 특정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혼내거나 하면 아이는 오히려 그 음식을 더 안 먹을 수 있고 다른 음식마저도 잘 안 먹게 되는 식욕부진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영양가가 있고 싱싱한 것을 스스로 알아서 먹기만을 바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음식을 조절시켜야 합니다. 소금, 지방, 설탕이 많은 음식은 집에서 가

능한 줄이고, 싱싱한 과일이나 야채 또는 곡식으로 만든 간식을 가능하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먹지 않는 식품은 아이가 흥미를 갖을 수 있도록 모양을 좋게 요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가정의 식단은 아파의 식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아파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만 준비해서 아이에게만 여러 가지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지 말고, 편식이 심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식단이 되도록 가족 전체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철분에 대하여

1) 철분이 중요한 이유는?

철분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기본적인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만일 부족하게 되면 신체의 각 부분에 나쁜 영향을 주어 성장발달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10달만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엄마로부터 철분을 받아 간에 저장하고 있어서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철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이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철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간에 저장했던 철분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여 아이가 섭취하지 않으면 철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2) 철분 부족의 원인은?

분유나 젖을 먹이면서 이유식을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제대로 먹이지 않았을 때, 젖을 끊고 대체음식으로 생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돌이 지나서도 젖을 먹이고 다른 음식을 잘 안먹었을 때와 같이 이유식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유식을 하는 시기가 되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아이가 영양결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철분이 적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생후 일찍부터 철분을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그외 출혈이 있을 때나 편식할 때 철분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3) 철분결핍시 증상은?

철분결핍은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부나 점막이 약간 창백해지면서, 아이가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으며, 활동도 줄어들고, 기분이 좋지 않고, 잘 보채며, 흙, 종이 등을 주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결핍으로 성장지연이나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신경계에 영향을 받으면 주의력 집중장애, 행동변화, 학업부진 등 지능에도 영향을 받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치료는?

이유식이 너무 늦었거나, 생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젖을 너무 오래 먹인 경우로서 상기

철분부족증상이 의심되면 혈액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후 철분부족으로 나타나면 이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철분부족을 가져왔던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고 식생활 개선과 함께 철분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먹이기 시작한 후 바로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보채는 것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하면서 치료효과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3-4개월정도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5) 철분부족의 예방은?

(1) 가능하면 모유를 먹입니다.

모유와 우유에 들어있는 철분의 양은 비슷하지만 모유에 있는 철분이 더 흡수가 잘 되어 우유를 먹는 아이가 철분 결핍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2) 생우유는 가능하면 적게 먹입니다.

생우유는 철분이 부족하고, 생우유를 먹은 만큼 다른 음식을 섭취할 기회가 적어지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출혈이 생겨 철분이 부족되기 쉬우므로 너무 일찍 먹이거나 많이 먹이지 말고 12개월 전후에 하루 500cc 이하로 먹입니다.

(3)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입니다.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는 과일, 과즙, 육류로 만든 이유식과 철분이 많은 간, 고기, 녹색채소, 김, 달걀 노른자, 곡물, 건포도, 밤, 호두 등을 먹입니다.

(4) 체중이 너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철분의 소모량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6) 철분약을 먹일 때 주의사항은?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철분약에 의한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적습니다.

(1) 알약 대신에 물약을 먹이는 경우 :

물약을 먹을 때 약이 치아에 접촉하면서 착색되어 치아가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을 빨대로 빨아 먹이거나 혀 뒤로 약물을 부여해서 치아와 철분약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아가 검게 되어 아주 보기 흉하나 영구적인 현상은 아니며 심하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2) 검은 변을 보는 경우 :

철분제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치료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3) 치료기간 :

약을 먹고 1주가 지난 후부터 증상은 좋아지나 충분한 치료를 위해 철분약을 3-4개월 정도 먹여야 합니다.

(4) 우유를 적게 먹이고,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입니다.

영양과 건강

질환별

영양관리(2)

남상미 · 안산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영유아기에는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고 또한 질환으로 인한 영양관리가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만성 또는 급성질환시 영양관리를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식이요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사, 알레르기, 만성위염, 탈수증, 급성위염, 영아습진과 당뇨병에 대해 다룬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도 남상미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동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시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화 상

충분한 영양은 심한 화상을 입은 소아를 화상에서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화상을 입은 소아는 화상을 입은 성인보다 체중당 에너지와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어떤 상해나 질병시 보다도 심한 화상을 입은 후에는 대사항진, 빠른 속도의 조직분해, 체내의 에너지·단백질 및 기타 영양소의 대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급하지 못하면 체중손실과 더불어 저장된 내인성 열량원이 급속하게 소모되며 상처치료를 지연시키고 패혈증이 동반될 위험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상처의 정도, 안정, 화상 전의 영양상태, 주위온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영양관리의 목표는 신체의 결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화상으로 인한 영양소 손실을 보충시켜줄 뿐 아니라 에너지 및 질소 평형, 회복을 촉진시키고 정상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데 있다.

식이요법

- 에너지 요구량에 맞추어 고열량을 섭취한다.
- 감염이 잘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고단백 식사를 하고 포도당을 공급해줌으로써 체단백 합성에 용이하도록 한다.
- 단백질과 에너지원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를 많이 한다.

◆ 비 만

비만이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피하층이나 각종 조직에 과도한 양의 체지방이 축적되고 여러가지 대사질환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흔히 과체중과 비만은 혼동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의미가 전혀 다르다. 과체중은 표준체중의 10~20%를 초과하나 대사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비만증은 표준체중의 20%이상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대사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질병의 발생은 신체 내부의 유전적인 요인과 신체외부의 환경적인 요인과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데 비만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소아비만의 치료 목적은 체중감소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식품 섭취방법과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행동수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체중을 평생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소아비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떤 특정한 원인 질병에 의한 증후성 비만은 1% 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단순성 비만이 대부분이므로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 행동요법의 다각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 조절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식이요법

식사요법시 가장 문제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체중조절을 위한 적절한 영양요구량의 결정이다. 아직까지 제시된 바로는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열량제한은 삼가한다. 경도 비만아의 경우에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정도의 식사량을 권하며 중등도 혹은 고도 비만아의 경우에는 경도 비만까지의 체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식사량을 감량하도록 한다. 과도한 식품 섭취를 금하거나 평소 섭취량의 30%를 줄인 균형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

- ① 체중의 감소를 위한 식사는 꾸준히 하고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이 든 식품 즉 곡류, 과자류, 사탕류, 튀김류, 아이스크림류는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 ③ 3식중 어느 한끼를 거르지 않도록 한다.
- ④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한다.

- ⑤ 취침전에는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 ⑥ 열량이 적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먹는다.
- ⑦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단백질 양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⑧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한다.
- ⑨ 음식은 싱겁게 하여 섭취한다.

◆ 빈혈

아동기의 철분 요구량은 성장속도, 철분 저장량 등에 따라 다르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은 혈액량의 증가 속도도 급속하기 때문에 철분의 요구량이 많게 된다.

어린이에게 철분 결핍성 빈혈이 높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성장을 위해 철분이 신속하게 이용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식사로부터 적당량의 철분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밖에 혈액 손실이나 기생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두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은 흔히 철분의 우수한 급원인 고기를 잘 먹지 않는 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너무 오래 조리하여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 ② 맛이 없다고 느껴므로
- ③ 여러가지 기타 이유로 가족들이 고기를 기피하므로 섭취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식이요법

-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뿐만 아니라 철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지도한다. 육류중에 존재하는 철분은 hemo철로 흡수율이 높은 반면, 다른 식품중에 있는 비hemo철은 흡수율이 낮으므로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타민C가 들어 있는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한다. 고섬유식이나 피틴산, 수산, 탄닌산, 칼슘, 인, 유당, 포도당 등은 철의 흡수를 저해하므로 식단 작성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화학적 검사결과에 따라 빈혈이 있는 아동은 소아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철분영양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 정상인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는 12g/dl 이상이고 헤마토크리트 값은 37% 이상이다. 헤모글로빈 농도 11g/dl 이하, 헤마토크리트 값 30% 이하는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되어 의사에 의한 철분영양제의 복용과 함께 철분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혈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품〉

성분	함유하는 식품
철분	<동물성식품> 쇠고기, 난황, 생선(가다랭이, 정어리, 참치) <식물성식품> 시금치, 유채, 파슬리, 목이버섯, 무말랭이 <해조류> 김, 미역, 갈조류
단백질	육류 및 가공품, 달걀, 생선 및 가공품, 콩 및 콩제품
엽산	<동물성식품> 쇠고기, 생선, 참치, 고등어,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비타민B12	<식물성식품> 청국장
비타민B6	<동물성식품> 정어리, 가자미, 닭고기, 난황, 돼지고기 <식물성식품> 호도, 시금치, 자두, 팥, 밀가루
비타민C	무, 파슬리, 시금치, 피망, 아스파라거스, 유채, 딸기, 레몬, 귤

◆ 충 치

충치는 영양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증세로서 모든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장기의 좋은 영양상태는 건전한 치아의 형성과 잇몸 조직의 발달, 그리고 충치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준다.

원인

충치는 치질(齒質), 음식물, 세균의 세가지 요인이 관여한다. 충치발생의 원인이 되는 치석은 수분, 타액의 단백질, 바리된 세포, 박테리아가 섞여있는 끈끈하고 점성이 있는 혼합물이다. 치석에 있는 박테리아는 식이당질을 분해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치아의 에나멜과 상아질을 파괴시키는 효소 및 여러가지 독성 물질들을 합성한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충치 유발을 높이는 당질은 자당(sucrose)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충치 발생은 설탕의 섭취를 감소시킬 때 충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간식의 횟수가 많고 잠자리에서 간식을 먹는 경우는 잦은 간식 섭취가 특히 충치 발생을 유발시킨다. 수면 중에는 타액의 분비가 감소하여 치아의 자연적인 세정작용을 줄이고 충치유발 물질을 더욱 많이 발효시킨다.

타액의 완충작용을 변경시키는 우유와 지방 식품을 섭취하면 치아표면을 보호하는 지방막을 형성하게 되어 치아를 보호할 수 있다.

식이요법

- 치아의 발달 및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영양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요즈음의 어린 아이들은 간식에 대한 수많은 광고의 유혹에 의해 간식의 양과 횟수가 늘고 있어 충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더커지고 있다. 식품의 점착도가 클수록 충치 발생도가 증가한다. 점착도가 큰 식품은 주로 당질을 포함하는 식품인 전병, 비스킷, 사탕, 젤리, 엿 등으로 이들은 충치 유발지수가 커 가급적 간식으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식품내 성분

1. 당질 : 당질의 함량이 충치발생에 가장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설탕이나 사탕이 충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는 분자량이 커서 치명의 세균막을 침투, 확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치면에 잘 부착되어 세균에 의해 역시 산을 형성케 하므로 충치발생을 조장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2. 단백질 : 치면에 유성 보호막을 형성된 산을 중화시키고 법랑질의 용해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충치발생을 억제시킨다.

3. 지방 : 치면에 유성 보호막을 형성하여 산의 침투를 방해하고 또 항균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충치발생을 억제시킨다.

4. 칼슘 : 체내에서 칼슘의 99%가 치아와 뼈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치아의 칼슘은 치아의 형성시기인 성장기 동안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다.

5. 불소 : 구강내 박테리아에 의한 당질 대사를 저해하고 산에 대한 법랑질의 저항을 증가시키며 치아의 재석회화를 촉진함으로써 충치를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불소 함유치약의 사용과 음료수에 첨

가함으로써 예방

6. 비타민 : 비타민은 치은이나 치아 주위 지지조직의 지속적인 치유와 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A 부족시는 치은의 이상비대나 치은염, 치주질환 등이 발생된다. 캐나다의 연구는 자연 햇빛과 동일한 형광등 밑에서 수업을 받은 어린이들은 일반 형광등 아래서 수업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 충치발생이 적음을 보고하는데, 이는 햇빛이 비타민D의 생성을 돕고 침샘 분비를 증가시켜 입안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타민D는 치아 경조직의 형성에 기본이 되는 칼슘과 인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치아 형성에 있어 비타민D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부족시에는 불규칙한 치면의 형성으로 인해 충치유발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 외에 비타민C는 충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결핍시 구강내 연조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충치 예방을 위한 영양상담

아동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을 선택하고 충치유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동들은 간식으로 설탕 함유 식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는데 치즈나 우유 같은 충치유발을 억제하는 식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의견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개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보육교사는 국고지원의 재교육을 원한다

민순영 · 부산, 주감어린이집 교사

내가 보육교사 생활을 한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졸업도 하기 전 12월말부터 들어와 지금까지 주감어린이집에 못박고 살아왔다. 4살 코흘리개 아이보기부터 해서 교구만들기, 밥하기, 걸레빨기, 청소하기 등 다양한 것들을 접해 보았다. 학교 다닐 때 아동학을 전공하긴 했으나 보육교사의 길을 걸으리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학업에 그리 열성적이진 않았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후회막급이었지만 말이다. 학교 다닐 때 유치원 실습을 일주일 정도 나갔었다. 하지만 현장생활과는 모든 것이 너무도 달랐다. 거기에다 우리의 교육 내용까지 담으려 하니 선배교사들의 품무니 쫓아가기도 허급지급이었다. 지금도 어떤 것이 바른 보육인지 정확히 모르고 교사로서의 품성 또한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한다.

들어와서 담장 현장에서 쓰이는 간단한 손유희, 노래, 구연동화 등을 잘 모르니까 여러가지가 걸렸다. 보육교사란 직업이 하루종일 어린이집에서 보내야 하니 교육받을 기회도 적고 다른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배우기도 힘들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고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나는 이런 이유로 여러 어린이집을 거치며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산보육교사회에서 이런 보육교사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작년부터 매달 한번씩 교사교육, 아동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필요했던 나에게 이런 교육은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조금씩 가지게 해주었다. 보육교사들의 이러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부산보육교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하는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는 상·하반기 2번으로 실기강습회를 실시하였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보육교사 교육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목마름을 채우기엔 부족하다. 교육시간의 문제도 있고 회비문제도 있고 내용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양적인 문제도 있다. 가장 직접적 현실은 담장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으려 하면 원장이 시간을 배려해주어야 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조건 속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가고 싶지만 회비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선택해야 한다면 너무도 서글픈 일일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실기 위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현장조사작업을 통해 아이에게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중심의 내용으로 많이 발전해야 하

고, 우리 것의 소중함과 기본을 지켜 가는 내용도 많이 보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육교사의 재교육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멀리 배우러 가야 한다면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상구면 사상구, 동래구 교사는 동래구로 모이는 구차원으로 실시하며 시에서는 교사 재교육에 더 많은 역량과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물론 교육은 부담을 주지 않는 무료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활발히 해야겠다. 장기적 전망과 함께 현재 하고 있는 한국보육교사회나 부산보육교사회의 좋은 내용들을 후원해주고 교육내용을 한국보육교사회 같은 단체에 위탁하여 보육교사들에게 빠른 시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유아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 말만 자라나는 새싹들, 차세대의 주력꾼들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보육교사의 질적 발전에 주저없는 후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우리 보육교사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면 더더욱 환영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보육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린 아로움을 보내주시면 추후 본 한국보육교사회의 이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퍼즐 정답〉

통	합	보	육	감	온	순
상	통	음	주	온	전	애
신	이	불			사	내
업		소	아	비	만	각
부	도				화	랑
	중	사	서	오	경	술
육	하	원	칙			하
	치	연		일	진	회
		당	신	철	교	탈
얼	니	뇨		차	력	

▼▼▼▼

현장소식 (1)

동근나라어린이집이 동네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박은하 · 서울 동근나라어린이집 자모

동근나라어린이집(교사들이 모두 본회 회원임)에서 10월3일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아동들을 위한 인형극을 하였고, 이번 하반기 사업으로 동네 어른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여 구청, 동회, 후원인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지역사회공동체에 기여한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소개합니다.

노오란 국화향기 그윽한 지금, 세상 모든 과일과 단풍도 새아시 불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우리에 마음도 이처럼 풍성하기만 하는 계절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계절에 우리 동근나라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나마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 너'가 아닌 '우리'라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가장 가까운 느낄 수 있는 가족을 배우고 자람으로써 사랑과 효를 몸소 실천해볼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저희 동근나라어린이집 가족 모두는 동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자모, 운영위원,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 어느 누구 소홀함, 무관심없이 모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노인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어린이집에서 노인잔치를 하나?'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대접하나?' '자모들 중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음식을 준비 하나?' 어느 무엇 하나 시원하게 수긍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날 밤 자모들과 선생님들이 야채부침을 부치면서 모든 게 어리석은 나의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재료를 갖고 와서 너무나 정성껏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가끔 마주치면서 혹은 자모회에서 잠깐 뵈 어머니들이 어색하고 친하지 못했던 걸 이번 노인잔치 준비를 통해서 그날 밤 많이 친해질 수 있었으며 어머니들 모두 선생님과 힘을 합친다면 내일 잔치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잔치날 정말 전날 느꼈던 자신감은 현실에서 풍부한 음식과 즐거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국악인 안남춘씨의 공연을 보며 민요를 같이 부를 수 있었고, 자활들의 사물놀이에서도 절로

어깨를 흔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꼬맹이 동근나라 친구들의 귀여운 율동과 노래는 충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200여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손수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대접했다는 점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설겅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접한다는 게 마음을 즐겁고 뿌듯하게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 운영위원, 자활, 공연해주신 분들, 자모님들, 그리고 준비한 음식과 공연을 즐겁게 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번 잔치로 아이들이나 저희 모두는 효의 중요성과 이기주의·개인주의가 만연해 가는 사회에서 이런 좋은 모습들로 사랑과 존경·화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체험을 통해 날로 커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과 효가 밑바탕이 된 장래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된다면 정말 보지 않아도 이 나라는 행복하고 밝은 미래만 있을 걸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잔치를 통해 동근나라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고 바쁜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현장소식 (2)

북한어린이를 생각하는 주감어린이집 작은 음악회

박현석 · 부산 주감어린이집 성만·지윤이 아빠

주례역 철도길 지하도를 넘어서면 양지마을 주택단지(가)가 있다. 백양산 아래 창신주택가에 위치한 신나는 주감어린이집, 그곳에 나의 두 자녀가 다니고 있다. 두 아이는 이곳 양지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커오고 있다.

아이들을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다. 벌써 큰 녀석은 여섯살 돌째는 다섯 살이다. 이러한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나에겐 기쁨이 있다. 바로 내 두 아이들, 세상의 어떠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고 내 눈 속으로 들어온다 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를 볼 때면 항상 고마운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바로 주감어린이집 선생님들이다. 사랑과 인내로 봉사와 섬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 아이의 장래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건강한 품성을 지닐 것이라 믿는다. 민족정신에 뿌리를 두고 자주성과 창의력 개발, 자연을 사랑으로 체험하고 공동의식을 양상시키는 그러한 교육의 분위기 속에 내 아이들은 매일 매일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증가되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처럼 유아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교육수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관한 자녀의 유아교육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집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탁아소적인 기능으로 생각하는 부모도 적잖이 있을 것이다. '백마리의 고기를 자녀에게 잡아주는 것보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치는 교육이 부모의 도리이다.'라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위대한 교육에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은 인간 본연의 진실로 입구어진 사명감으로 표현될 때 교육의 효과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러한 유아교육에 관한 나의 사고와 관심은 적잖이 선생님들의 생활을 보며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본다.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양지마을에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내 두 아이가 주감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모든 학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다음은 주감어린이집 교사분들의 애상스럽고 열정적으로 어린이집 유아들과 마련한 뜻있는 작은 음악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람으로 익은 단풍잎이 높푸른 하늘 아래 가을빛으로 내려앉은 시월십일 저녁 무렵 아이의 웃음과 종물터 관국이 주례대성아파트 뒤편 놀이터에 요란히 가득 찬다. 먼 하늘 먼 땅 북녘까지

퍼져나가도록 모두가 열심히 가락을 만들고 있는 신나는 주감어린이집 작은 음악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꼬마들, 형님, 누나, 아빠, 엄마, 이웃아저씨, 온 동네사람들이 놀이터 마당에 앉아 모였다. 한마디로 동네 잔치마당이다.

작은 음악회의 명목이지만 작은 음악회가 아니다. 북한어린이를 생각하는 위대한 음악회이다. 아이들이 평소에 창작 활동을 한 미술품들이 뒤편에 나란히 전시되어 너나 없이 감상했다(역시 우리 아이 작품이 최고여!). 놀이터 입구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모금함도 보인다.

예쁜 선생님의 사회로 음악회는 열렸다.

먼저 어머니합창단이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이란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 아이들의 길잡이를 해주었다. 나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다.

... 중 략 ...

"영어 단어 몇개보다는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이게 하고

일류대학 졸업장보다는 꿈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라.

아침에는 미술학원 낮에는 피아노 학원

저녁엔 텔레비전 아 분주한 하루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건 문방구 간판을 단 전자오라실

놀이터 몇 개쯤 있지만 아무도 거기엔 없는 걸

유치원 경쟁률보다는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이게 하고

백원짜리 동전보다는 꿈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라"

이 곡의 작사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짧은 문귀 속에 깊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나는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영어단어와 일류대학을 꿈이라 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이라 가르치지 않을까?

꿈이 더 필요한 세상, 꿈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그러한 아빠가 되어야지...

김향진원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부산여성회 박영미회장님, 이은수시의원님, 민족통일 전국연합본부 회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역시, 우리 원장님은 마당발이시!).

음악회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예선을 거친 가족 합창들, 어떤 가족은 아빠가 음치였고 어떤 가족은 아이들이 고함만 질러댔다. 곡이 끝날 때면 동네어른들은 최고라고 박수를 힘껏 쳐주었다. 참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사랑스런 가족들의 합창이었다.

3세, 4세반인 진달래반의 전래동요와 율동이 이어졌다. 엄마와 조용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목은 '관죽 할머니와 호랑이'. 참으로 많은 연습을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아빠의 호랑이 고함소리 좀이상한 괴성이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 괴성은 아마 곰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이제야 내 딸이 나오는 나리반의 수화화 소고춤이 시작된다. 17명의 아이들이 나왔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한 명밖에 안보였다. 제일 예쁜 재롱둥이 내 딸. 내 딸이 최고여!(아무래도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반 쏘수 소릴 들겠군) 모두가 하얀 장갑을 손에 끼고 노래에 맞추어 손가락으로 하늘

속에 모양을 만들어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의 한을 저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초롱한 눈빛으로 손가락 노래를 했다. 그런데 한명만 장갑을 안끼고 노래한다. 장갑을 잃어버린 바로 내 딸이다. 그래도 최고여! 야 잘한다. 장한 내 딸...

"개야 개야" 전래동요에 맞추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소고춤도 추었다. 아마 옥황상제께서 계셔서 보셨다면 모두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데려가려고 했을 것이다. 안 계시고 안 보신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누나의 거문고 산조 연주는 처음 거문고 소리를 대하는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듯하다. 참으로 우리것은 좋은 것이다. 민족음악은 우리의 마음 아래 살아있음을 느낀다. 지난날 우리의 음악교육은 무조건 서양적이었다. 전통 고전음악을 천박하고 구식스럽고 보수적이라고 배웠다. 음악에서 우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한국인에게 이태리인, 독일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연주하는 누나의 모습은 존경스럽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어린이집 6,7세 형님 누나인 채송화반의 풍물 공연과 수영아류의 순서로 이어졌다. 쇠와 장구, 북과 징을 버섯 같은 손으로 판굿을 벌린다.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이 소리 속으로 자라난다. 우리의 소리, 민족의 소리 온 동네 울려 퍼져라!

수영아류 제3과장 할미 영감(할미 영감 제대 각시의 장) 가면공연이 시작되었다. 피리 같은 목소리로 제법 할미 할미 소리 흥내를 내며 어떻게 그 많은 대사를 외웠는지 또박또박 연극을 해댄다. 사물에 맞추어 덩실덩실 손짓 몸짓 춤을 추며 장을 열어간다. 환자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우수한 우리 문화이다.

마지막으로 형님 누나 대학생의 풍물공연으로 음악회의 끝막을 알렸다. 사물패의 장단이 저물어 가는 저녁 햇살을 타고 먼 하늘 높이 높이 울며 날아간다. 주강어린이집 아이들 사랑의 마음을 안고 북녘 땅 어린이 마음속으로...

북한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주강어린이집 작은 음악회는 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아이와 북한의 아이를 서로 비교하고 알게 하여 민족의 동일성과 형편에 의한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우리 악기와 민요와 전래동요로 우리 전통문화를 인식케 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한 것 같다. 몇일전 신문과 TV에도 보도되었다. 또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도 있었다. 참으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분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더욱 더 건강한 전진을 위해 힘찬 박수와 신선한 격려를 보낸다.

현장소식 (3)

'97 인천보육교사회 가을운동회

노승경 · 인천 예술어린이집 교사

다스한 햇살과 드높은 하늘, 시원한 바람. 인천보육교사들의 체육대회인줄 아는지 날씨까지도 축하를 해주는 듯... 아주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제물포에 위치한 선화여상 운동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모임 교사들의 발걸음. 분주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들이며 10시부터 메나리종물패의 신명나는 한마당이 펼쳐지고 우리의 선생님들, 전직선배님들, 자원활동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바탕 즐겁게 놀아볼 생각들로 마음이 설렘했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 부대끼고 도와주며 단합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맛있는 비빔밥과 콩나물국, 어린이집마다 준비해온 나물들과 싸가지고 온 밥을 넣고 박은하선생님의 힘센 팔로 짹짹 비벼서 한입 쏙.. 으와 꿀맛. 밖에서 먹는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정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오후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식사후 나른한 모습들도 아랑곳 모두들 열심히 까마귀팀과 백팀의 치열한 경기들이었습니다. 결국 백팀이 이기긴 했어도 "우리는 하나" 축하해주며 박수를 보내고 선 물도 나누어 갔구요.

땀줄이의 한마당, 선생님들의 소감 한마디와 더불어 노래 한곡조씩.

선화여상 운동장안에 보육교사들의 열기와 함성은 끊이지 않은 듯 합니다. 좋은 날씨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모습, 마치 어린이의 모습들로 돌아간 듯한 기분. 선생님들 덕분에 97



년도 가을 운동회도 무사히 아주아주 즐겁게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웬지 아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의 그 아쉬움을 잊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들 내년을 기대하세요. 항상 힘찬 모습과 정열적인 우리의 인천보육교사회 선생님들... 파란 하늘 아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정말 멋져요. 언제까지나 그런 모습들로 남기를... 화이팅이에요.

▼▼▼▼

현장소식 (4)

『어린이와 그림책』 강좌를 열고서

류현주 · 서울 어깨동무어린이집 교사, 국공립보육교사회 회원

저희 국공립 보육교사들은 지난 1997년 6월21일에 아이들의 올바른 보육과 교사의 권익보호, 건강한 교사상 확립 및 보육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목적으로 여덟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조촐한 국공립 보육교사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 사업계획에는 교사의 자기 개발을 위한 세차례의 교육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강좌로는 [어린이와 미디어]로 텔레비전 시청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희 교육부에서 직접 모니터하여 보고하고 현 실태를 설문지로 조사하여 알아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큰 관심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좌로는 [어린이와 그림책]에 관하여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회원이신 오윤정 선생님을 모시고 '아동문학으로서의 그림책'이란 주제로 공개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그림책은 언어교육의 수단 또는 어린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어린이에게 어떤 순수한 즐거움을 주고, 참된 가치가 있으며, 성실하고 진실한 비전이 있어 어린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의 그림책을 선택함에 있어 그림책은 문학 작품으로써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로 어린이의 그림책은 글을 모르는 어린이가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귀로는 글을 듣기 때문에 삽화 수준의 그림이 아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림의 비중을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로 어린이의 책은 어린이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여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주제로 하여야 한다.

셋째로 그림책의 그림은 어린이에게 예술을 느끼게 하므로 특정한 그림 기법보다는 아이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성이 담긴 그림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넷째로 그림책의 글은 귀로 듣는 것이므로 리듬감 있는 글을 통해 소리의 기쁨을 주고, 선택된 단어와 문장으로 어린이들에게 말의 재미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그림책은 되풀이되는 말, 반복된 구성으로 단순 명쾌하며 진행에 있어 막힘이 없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책은 대상 아동의 연령에 맞도록 선택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와 그림책]의 교육강좌는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으로 지난 교육강좌때의 두배가 넘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자연스럽고, 친근한 친구들과의 만남과 같은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작은 수의 선생님들의 모임이 되었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선생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저희 국공립보육교사회의 참여를 약속 받으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공립보육교사회에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신 오윤정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광고 * *

1998년 1월에는 제3회 국공립보육교사회 교육강좌로 [어린이와 미디어]에 관하여 1회 교육강좌를 바탕으로 더욱 유익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0원 가정 한마음통장 제도, 들어보셨나요?

여성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원 및 회원관련인이 새로 통장을 개설할 시, 한국보육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은행통장(조흥, 농협)의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세후이자 3%(거치식, 적립식 예금 및 신탁일 경우) 혹은 30%(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등 자유일출식 예금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기금에서 보육교사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전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자발생금을 모두 갖되, 은행기금에서 따로 할당분의 금액을 본회로 주는 것입니다.

현재 조흥은행이나 농협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본회 코드번호를 은행창구에 가서 알려주시고, 없으신 분은 새로 개설할 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흥은행 코드번호 2000001643

* 농협 코드번호 3000520000

좋은 그림책 소개

우리끼리 가자 - 김지승의 겨울나기

윤구병 글 / 이태수 그림 / 보리출판사 / 6,800원



가을도 절정기에 접어든지 오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첫눈 소식이 오겠지요. 충천연쇄 낙엽들은 다 떨어지고 하늘도 회색빛으로 바뀔 겁니다.

계절은 날카롭게 변해가고 사람들 마음도 움추러들고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책 한권을 선물 받는다면?

『우리끼리 가자』는 흔하지 않은 우리나라 참작 그림책이며 참작 그림책 중에도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그림 첫장만 넘겨도 얼마나 정성을 들인 책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흑백의 그림이지만 움직이는 듯한 동작, 살아있는 듯한 표정의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 옛이야기 한 장면을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산양할아버지한테 옛날이야기 들으러 갈래?’라는 아기 토끼의 제안에 곰·다람쥐·노루·멧돼지·족제비·너구리가 동참하고 다들 길을 떠납니다. 한마리씩 한마리씩 겨울 준비를 위해 남고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끼리 가자’며 계속 계속 산양할아버지에게로 향하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홀로 남은 아기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산양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늑대를 물리치고 아기 토끼는 산양할아버지 풀 속에서 옛이야기 속으로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장한장 넘기는 동안 꼭 고개를 넘은 듯하고 개울을 지나는 듯하고 나무 밑을 지나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이 정성스럽고 섬세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산을 하나 통째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맨마지막 함박눈이 펄펄 오는 가운데 산양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옛이야기를 들으며 잠자는 아기토끼가 너무너무 부럽게만 보입니다.

유아들보다는 3세를 전후로 한 약간 어린 아이에게 더욱 어울리는 것 같고 이야기가 밋밋할 수도 있으니까(흑백이고 너무 부드러운 터치와 그림이라서) 위기상황을 잘 표현해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리라 여겨집니다.

함박눈의 겨울이 기다려지는 그림책이지요.

그림책 소개 : 고영미(경기도 안산시 안산어린이집 교사,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소모임 소개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강교사 - 건강교사소모임

이예용 · 서울, 토크이어린이집 교사

한국보육교사사회에는 여러 소모임과 교육모임이 있습니다. 종원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모임과 교육모임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공유와 비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각 소모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10월18일 '보육시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건강교사 교육을 하였다. 발제와 강의, 보고의 세가지 내용으로 했는데 발제는 건강교사모임때 다루었던 내용중의 하나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건강교사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있는 노승경(인천, 예술어린이집)선생님이 하였고, 인의협에서는 '행동장애 아동의 조기발견과 관리'에 대한 강의와 성인·아동 약 600여명의

건강검진결과 보고를 했다. 질문시간에는 주로 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건강교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사?' 책임진다는 건 너무 부담스런 말이고 어린이집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교사라는 뜻이 더 적절하다.

건강교사모임은 6월말 본회소속 회원 16명의 교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이신 김유호선생님(유소아과 원장)의 참여로 시작해서 현재 8회까지 진행하였다.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흔히 생기는 질병(감기, 설사, 발진 등 동반하는 질병)과 예방접종,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의료기관 직접 방문해보기, 외상처치 등이다.

처음 건강교사모임의 제

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다. 원래 약 먹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되도록이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미리 병을 예방하고 아프더라도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도 몇가지는 있었다.

실제 어린이집의 실정은 나의 의지와는 많이 다르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픈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 싫더라도 약을 먹일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엔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벼운 증세처럼 보이는데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처방을 갖고 있지도 않고, 혹시 약을 안 먹여서 더 증세가 악화되

면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이게 된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어떻게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아이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아이가 약을 먹게 되면 아이의 몸 속에서 이 약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까? 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혹과 죄책감도 있었다.

건강교사모임이 인의협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고 인의협이라면 뭔가 아이의 건강에 대해 다른 대안이나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

모임의 내용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부터 하기로 했다. 그리고 건강일지를 써서 2주동안 아픈 아이들의 증세와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서로 이야기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감기에 대해서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교사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것으로 정하고 발제자, 사회자, 기록·정리하는 사람을 정했다. 모임에 나가면서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과 얘기를 주고 받다가 놀란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약을 먹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 나름대로 몇가지

의 민간치료를 가지고 있었다. 너무나 고마운 건 모임에 함께 하는 김유호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민간치료법을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잘못된 방법이라면 지적해주는 그 점이었다.

건강교사모임을 하면서 크게 배운 건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선생님의 친절하고 쉬운 설명을 들으면서 의학상식이 제대로 잡히는 것 같고 침착하게 아이의 몸상태를 관찰하게 되는 여유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다. 난 서양의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병원을 자주 찾아가게 되어 있다면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보면 아이가 다치거나 갑작스레 열이 나거나 기운이 없고 눈곱이 끼는 등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겁이 덜컥 난다. 그리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약 없이도 마음대로(?) 실컷 아프고 나올 기회도 없다. 왜냐하면 아주 흔한 게 병원이고 약국이니까, 그렇다고 병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세상에 나온 지 몇개월 안된 아기가 약을 힘겹게 먹는 걸 보면 '이거 없는 병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냐?'하는 불길한 생각도 하게 된다.

어쨌든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 나의 절실한 소원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다. 어떤 병에 어떤 약이 좋고 어느 병원을 찾아가면 잘 낫는다 하는 그것을 넘어 쓸데없는 약물남용이나 굳이 아이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미리 병을 예방하는 어린이집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그런 건강교사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건강교사모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장교육

풍물굿 배우기

김영금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우리 흔히 '농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농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시기는 일제시대. '농악'은 문자 그대로 '농촌(농민)의 음악'이란 뜻이 되며 농촌의 음악이라 하여 현대사회에 불려왔던 이름이다. 하지만 풍물굿에 음악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풍물굿은 바로 노래, 춤, 신앙, 노동, 전투 따위가 모두 밀려온 대동놀이이며 박제화나 예술적 장르관습의 폐해에 찾아있는 인식을 깨닫기 씻어주기에 충분한 민중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풍물굿은 공동체 속에 자기 자신이 직접 참여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주체적인 삶을 훈련해내는 탁월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풍물굿을 배우며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 자기 일을 스스로 자신감있게 꾸려나가는 힘을 기르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는 것이라 하겠다. 단지 우리것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풍물굿에 담겨져 있는 건장한 정신을 심어주고자 함이다. 아직 풍물굿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그것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물굿의 정신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심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기 보다 배워나가는 자세로 함께 하고 싶다.

아이들과의 만남의 첫날. 풍물굿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많은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오랜 만이라 그런지 얼굴을 벌겋게 땀은 비오듯 주르르...). 우리 조상들은 마을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거기엔 항상 풍물굿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엔 '풍물굿'이라는 말이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무슨 시간이지?"하고 물으면 "풍물굿 (배우는) 시간이에요."라고 대답하며 아침에 출근하는 나를 보고 "풍물굿 선생님!" "장구선생님!"하고 골절 부른다.

풍물굿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이다. 지금까지 9번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아이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우리 장단과 친해지고 공동체적 신명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가락을 먼저 배우기 보다는 자기 몸이 악기가 되어 두드리 보기, 재미있는 입장단 배우기, 제각각의 춤과 여러 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이전 직접 악기를 두드리보는 시간도 갖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저마다 장구

(아기장구)와 소고를 메고, 또는 들고서 걸어서 15-20분 정도의 거리까지 긴 행군(?)을 한다. 교사들은 힘들어서 쟁쟁대는데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다.

일정한 교육(강좌...)을 받지 않은 나로써 학교때 가락중심으로 배웠던 것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다. 주위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특히 우리 지역에선 풍물소모임(누렁소) 성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다음은 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교육일지

1997년 9월 24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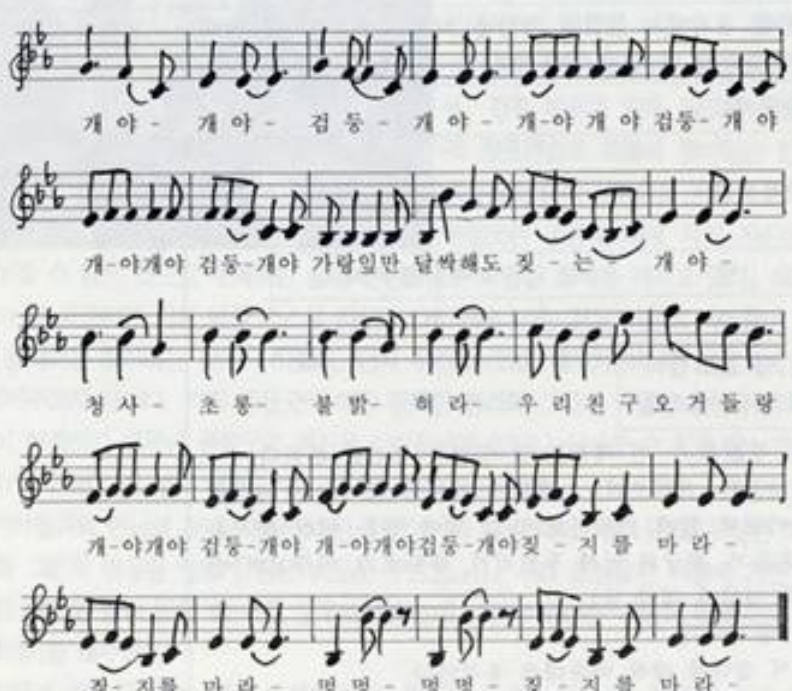
작성자 :

활동주제	몸으로 장단 익히기(자진모리=삼재)	활동형태:
활동목표	직접 몸을 움직이고 두드리 장단을 익히고 또 놀이를 통해서 우리 장단과 더 쉽게 친해지며 그 즐거움을 맛본다.	교사의견 및 평가
준비물	장구(장구채)	● 이름굿 : 굿가락을 어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
활동내용 :	1. 이름굿 장단 반복하기 2. 자진모리 장단 덩 덩 덩 따 궁 따 3. 입장단 익히기 입장단 : 덩 덩 왔다갔다 덩 덩 요리조리 • 덩-덩 : 자신의 무릎을 두 번 때리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한다. • 덩-따 궁따(왔다갔다, 요리조리) : 리듬과 억양이 들어있는 재미있는 말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며 그 말에 맞는 여러 동작을 한다(머리 흔들기, 친구의 어깨 두드리기, 주무르기, 마주보며 손 뻗치기, 무릎 엇갈려 치기 등). 4. 장단에 맞춰 몸 움직이기 • 일어난 자세에서 장단에 맞춰 마음대로 움직인다. • 원을 만들며 걸어본다(시계 반대방향). - 두팔을 펴서 흔들면서 걷는 등 여러 동작을 취한다 → 짹짹 • 걷는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뛰어본다. 5. 놀이(어디만큼 강가) • 노래 : 어디만큼 강가~ 당당 밀었네~ • 동작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한 사람은 앞에 다른 한 사람은 머리와 손을 앞사람의 뒤통리에 대고 걸어간다. 뒷사람 → 어디만큼 강가~ 앞사람 → 당당 밀었네~	

교육일지

1997년 9월 24일 수요일

작성자 : 김영금

활동주제	민요 부르기	활동형태 :
활동목표		교사의견 및 평가
준비물	민요가 적힌 자료, 장구	
활동내용 : 민요배우기 제목 : 통영 개타령 민요가사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꾸며 말한다.  개 아 - 개 아 - 집 동 - 개 아 - 개-아 개 아 집 동- 개 아 개-아개아 집 동-개아 가랑일만 달짝해도 짝 - 는 개 아 - 청 사 - 초 롱 - 불 밤 - 허 라 - 우리 친구 오 거 들 랑 개-아개아 집 동-개아 개-아개아 집 동-개아 짝 - 지 를 마 라 - 짝 - 지 를 마 라 - 명 명 - 명 명 - 짝 - 지 를 마 라 - ② 개아- 개아 백설-개아- 개아개아 백설-개아 개아-개아- 백설-개아- 가랑일만 달짝해도 짝는 개아 밤-중예(밤중예) 야밤중예(야밤중예) 우리친구 오거들랑(우리친구 오거들랑) 개-아 개아 집 동-개아 개-아개아 집-동-개아 짝지를 마라 짝-지를 마라- 명명- 명명- 짝-지를 마라 (쟁쟁) (쟁쟁)		

육아일기

유빈이는 무쇠가 아니예요

나은미 · 경기도 고양시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바람도 제법 차고 세게 불니다. 이맘때면 항상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개도 안걸린다는 여름감기 때문에 고생했던 유빈이인지라, 건너뛰지는 못하더라도 가볍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돌기가 무섭게 놀이방의 언니, 오빠, 친구들이 하나둘 콧물·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유빈이에게 별다른 증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잘 먹더니 열심히 놀더니 이제 웬만한 감기쯤은 거뜰히 이겨내나 보더라'는 생각이 들 무렵, 유빈이의 코에 콧물이 걸리기 시작하고 어느날 목소리가 선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놀아서 삼사일 그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하루 이를 편찮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누런 콧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게다가 밤에 잠들면 아침까지 잘 자고 일어나던 어느때와 다르게 며칠동안이나 두세차례 깨어나 울며 보채고 잠꼬대까지 했습니다. 무심한 엄마는 낮에 아이들에게 시달려 안좋은 꿈을 꾸나보다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낮에 밥도 잘 안먹고 짜증을 많이 내고 잠을 설치 그렇겠지? 엄마는 맘대로 생각했답니다. 그러기를 며칠, 밤에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개짖는 소리를 내며 기침을 하길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후두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알파한 상식으로 유빈이의 병을 키운 게 아닌가 싶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틀동안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때를 거르지 않고 약을 먹여서 그런지 우리 유빈이는 곧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또 보채기 시작하여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후두염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번에는 콧물이 많아 코가 막히고 가래가 심하다고 합니다. 약을 3일분 받아와 먹었습니다. 지금도 감기 끝이라 예전만큼 잘 먹지는 않지만 밤에 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한번 앓고나면 큰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혼자도 잘 놀던 유빈이도 이번 감기로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장난을 치며 귀찮게 해서 울리고 그럴 때마다 썩 웃으며 재미있어 합니다. 엄마가 혼을 내면 전에는 눈치를 보며 웃으면서 애교를 부렸지만 이제는 툭 바로 쳐다봅니다. 불만스런 표정을 짓고는 "야"하고 소리치며 엄마를 때립니다. 아이들 장난에 어른이 참견하는 게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 폰트 ●

너무 스폰 어느 가을날...

박희영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자, 친구들 간식시간이에요. 들어오세요.”

오전 간식을 준비하며 최선생은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나 놀이실 여기저기서 흩어져 한참 신나게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모이기는 쉽지 않다.

“친구들아, 우리 정리하고 간식 먹고 다시 재밌게 놀까? (큰 소리로 노래) 놀이시간 끝났다. 정리를 해보자. 서로서로 도와서 제 자리에...” 정리를 유도하는 노래를 비롯, 동요 몇 곡을 부르는 사이, 놀이감은 정리되고 아이들은 책상 앞에 모여 앉는다. 노래 부르는 사이 사이 목이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 최선생은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며 컵에 우유를 따른다.

우유 한잔과 단감 한 쪽씩을 맛있게 먹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쉴 새없이 지저귀는 거다가 연 질문은 그리 많을지...

“편편미, 우유는 두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되지요?”

“선생님, 나 어제 이거 감 먹었어요.”

“선생미도 왜 우유 먹어요?”

날마다 함께 간식 먹으며 날마다 아이들이 쏟아붓는 비슷한 또는 파격적인(?) 다양한 질문들. 여기들에 최선생은 늘 최선을 다해 대답하고 반응하며 이야기들을 이어간다. 사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들 속에서 최선생의 입을 다물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 8시부터 시작되는 등원때부터의 인사와 안부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최선생이 쏟아내는 언어들, 노래들은 그야말로 그침이 없다. 거다가 늘 다정다감, 나긋나긋한 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 경우엔 라디오의 효과음 같은 쏘소리, 천둥소리들이 최선생의 목에서 울려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1주일 전부터는 이렇게 목이 따끔거리고 한 번씩은 목인이 꼭 막히듯 목소리가 답답해지는 통증을 느껴왔다.

아이들의 우유컵들을 치우며 최선생은 병원 진찰을 받아보리라 결심했다. 다행히 최선생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가까이엔 이비인후과가 있어서 낮잠시간의 활용으로도 진찰시간은 충분할 것 같다.

오전 교육활동, 자유놀이시간, 점심시간으로 갈수록 최선생의 목은 침 삼키기도 힘들 만큼 목 안이 부은 듯하며 아파왔다. 아픈 목을 참으며 노래 다섯곡에 옛이야기까지 들려주며 아이들을 재운 후, 최선생은 병원으로 향한다. 당장 보험카드가 없긴 하지만 내일 가져다 주면 현물장선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병원으로 들어섰다. 초진접수를 하며 순서를 기다리다 몇 분 후 “최영아씨”라며 이름이 불리우고 최선생은 긴장된 맘으로 진찰실 의자에 앉는다. “어디가 불편하세요?”라는 말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최선생에게 제법 젊은 의사는 불쑥 말

을 던진다.

“예전에도 오셨는데 뭐 허러 초진접수 하셨어요?”

“네?”

최선생은 아리둥절하여 반문했고 의사는 “목이 또 아프십니까?”하는 말로 진찰을 시작했다. 입을 벌려 목 안을 보고 긴 쇠대롱 같은 갈로 칙칙 소리를 내며 악을 코와 입 안에 분사하기도 했다. 진찰 후 의사는, “이번엔 왼쪽이 심하게 붓고 염증이 있네. 이번엔 오른쪽이시네요. 보통 아픈 부위가 자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줄이고 목을 아끼면서 생활하시라고 했는데 통 신경을 안쓰셨구만요.”

“자, 목이 며칠 전부터 아팠어요. 그러구 이 병원도 처음 왔구요.”

“아하, 6월달에 다니셨잖아요. 여기 차트도 있는데.”

“이상하네...”

고개를 갸웃거리는 최선생에게 퍼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다.

‘아, 저번에 김선생이 갑자기 많이 아파서 우리 가족 보험카드를 빌려줬었지 맞아. 그때 내 이름으로 치료 받았었구나. 김선생도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목이 아팠으니 이비인후과에 왔었겠다.’

“자, 실은요. 같은 직장동료가 갑자기 많이 아팠는데 마침 저한테 보험카드가 있어서 빌려줬었어요. 죄송해요.”

“뭐요? 그러시면 안되는 거 몰리요?”

젊은 의사의 높아지는 목소리에 최선생은 당황스럽고 무안하고 겁도 났다.

“안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가족보험카드가 시골에 있고 주민등록문제도 복잡하고 그래서 평소에 보험카드가 없어요. 저 여기 옆 건물 저 어린이집 교사대요. 저희가 목 같은 데가 갑자기 잘 아픈데 약국 약 먹어도 잘 안듣고 그렇다고 맨날 병원 다니면서 보험카드도 없으면 사실 치료비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애들하고 내내 얘기하고 목을 많이 쓰는 일이다보니 목 아플 때 바로 치료 못하면 수업하고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죄송해요, 선생님.”

“나 참, 어린이집에서 같이 일하면 직장의료보험 나오잖아요?”

“저희는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보험보장이 없어요. 어린이집들마다 해당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또 원장선생님이 신경 안써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가까이 사는 정으로라도 한 번만 이해해주세요.”

최선생은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에 이웃사촌의 정까지 들먹이며 부탁했고 젊은 의사는 “젊은 사람이 어찌고... 그런 직장이 저쩌고...” 해가며 배려인지 동정인지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됩니다.”하며 애길 마쳤다.

목이 아픈 것도 주시가 아픈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최선생은 대기실의 사람들과 간호사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을 뒤로 하고 화끈거리는 얼굴로 병원을 나섰고, 서럽고 속상한 마음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린이집에 들어서는 데 아이들은 아직 자는지 편안한 고요함이 가득하고 동료교사들은 놀이실 한쪽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잘 갔다왔어? 주시 맞았으니 금방 괜찮아질거야.” 평소에 친한 김선생을 선두로 교사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는데 최선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서러움(?)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읽기

퍼스트레이디의 희망을 위하여?!

위양자 · 본회 부회장

‘만일 내가 퍼스트레이디가 된다면 무의탁자를 위한 무료병원을 짓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남편 이름은 ○○○이라 했다. 얼마전 첫손주를 안겨준 딸의 산구안으로 부산한 평범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다.

0살부터 학교 가기 전 어린 사람도 세금내는 국민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유병에 든 분유를 빨고 있을 때나, 50원짜리 종선경을 살 때, 500원짜리 치토스를 살 때마다 세금을 낸다. 자신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투표권이 없나?

나이들고 병들어, 있던 자식마저 없어진 사람들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에도 이 땅에 자신의 몸 하나 가릴 어덕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거리를 떠돈다. 나이들지 않고 병들지 않았을 때 10원 한장 떼지않고 내라는 세금은 다 내고 살았건만, 그래서 투표권이 있나?

어린이나 늙고 병든 행려들은 어쩌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를 아니면 자신의 이웃을, 세상을 한없이 믿는 착하디 착한 존재들이라는, 굳이 다시 말하자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요즘 '97 대선을 눈앞에 두고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할 일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라는 법이 시행되고부터 설령 본인일지라도 신분증을 안가져가면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바로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타인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국민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신들의 당락을 위해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여주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린이나 늙고 병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가지 더 있다. 요즘 들어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교생들까지 있는 그 흔한 폐배나, 무엇이 그리 빠른 정보와 만남이 필요한지 조용한 공연장까지 들어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오라는 곳은 많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곳만 골라 다닌다는 점에서 그들은 어떤 정보나 유혹에도 자유롭다.

['97년 10월8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문구를 어디선가 보았다. 당시 '97대선

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 생중계를 한순간도 보지 못했지만 그날 TV 3사의 경쟁적인 생중계만큼이나 상식을 벗어난 진행자의 노골적인 의도는 『한국논단』이 『극우세력』이라는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대선후보들을 불러 놓고 감히 사상검증이라는 역사에 유례없는 오만한 짓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려는 정당치 못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 『여우꼬리 감추기놀이』를 벌였고, 이에 한국언론을 대표하는 TV 3사는 덩달아 춤을 추는 추태를 보였다. 아마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이날 생중계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다행스럽다.

옛 속담에 “똥물은 개가 겨물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다. 전세계가 냉전이데올로기를 종식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바야흐로 세계화시대에 주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

'97년의 마지막 분기점에 서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히 난 불안하다. 올해의 마지막 기대일지도 모르는 대선이 끝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정보를 잠악하고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 맨주먹인 국민들을 향해 쏘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긴 하지만 심증이 가는 그런 불안 말이다.

어찌보면 투표 한 번 하면 되는 일이 가정경제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처럼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오늘도 내일도 가정을 사람이 꽃피는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린이나 늙고 병든 노인들이 막연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바로 그들의 욕심없는 눈과 굳이 가득 채우려하지 않는 욕심없는 마음들이 방패가 되어 불발탄 연발, 불발탄 연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병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갓 태어난 손주를 온나라와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공보육·공교육을 위해 우리 보육교사와 손잡고 고민할 옆집 아줌마의 남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번달에 내야 하고 앞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이 조금 덜 아까울텐데, 나의 이런 바람이 누굴 편들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우리 보육교사들이 잘 알 것이다. 사실 선거때만 되면 현실정치인들에 대해 이런저런 관심을 갖게 되지만 선거때가 아닌 일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표지사진 공모 - 『우리네 아이들』에 예쁜 얼굴을 보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는 순간 가슴을 환하게,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린이집 일상활동에서 자주 접하지만 결코 흔치 않은 아이들의 맑은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현실에서도 ‘굳세어라 금순아’를 가슴으로 부르며 깨끗하게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보내주세요.

그저 그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사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 어디로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요. 주소랑 전화번호는 『우리네 아이들』 앞표지에 나와있어요.

'문화의 달'이라는 10월에는 날씨도 좋고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다. 서울 시내 이곳저곳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선 기억도 떠오르고 말이다.

이쿠노에서 그 10월을 처음 보내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여러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단합심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축제를 '마쓰리'라고 부르는데 여름과 가을에 열린다. 사실 구체적인 기원이나 유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신사'라는 이들의 정신적 신앙이 중심적인 것 같다. 커다란 수레와도 같은 것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북을 치며, 그 지붕 위에 한 사람이 춤을 추며 지휘를 한다. 이것을 많은 이들이 짊어지고 밀고 끌며 행진을 하는데 북소리에 맞춰 커다랗게 노래도 부르고 함성도 질러대며 동네를 일주한다. 그러다가 다른 마을의 일행을 만나면 누가 먼저 길을 차지하

는지 힘을 겨루는 것이다. 외형상 얼핏 우리의 '차전놀이'를 떠올리면 연상이 될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본식 복장을 한 사람들의 한 때가 떠들썩하니 한바탕 기세를 펼치면서 마을을 누비는 것이다(이 '마쓰리' 때는 동네시장도 열리고 밤늦게 사람들이 구경을 다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일본식 축제에 맞서 이쿠노에 사는 재일동포들이 우리 문화 축제를 열고 있다. 동네 게시판에는 10월19

일 '이쿠노 마쓰리'라는 광고와 나란히 '제15회 이쿠노 문화제'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이다. 많은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는 특색이겠지만 평소 일본식 생활과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가을하늘 아래 자신의 뿌리와 문화를 펼쳐 보이자니 아무진 뜻과 희망, 그리고 땀이 배어있는 큰 잔치인 것이다. 이쿠노 문화제는 올해로 벌써 열다섯번째를 맞이하는데 창립 당시 지역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그중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김덕환선생님과 성화사회

관이 큰 몫을 해왔다).

10월 좋은 날을 하루 잡아 잔치를 열고, 평소 일본인 아닌 일본인으로 살며 억눌려 온 본래의 혼을 뽐내보자는 이쿠노 문화제는 민족의 문화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재일 3세, 4세 젊은이들의 민족문화 경험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날을 위해 '문화제실행위원회'가

봄부터 구성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사람도 모으고 내용도 만들고 협찬도 얻는다.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어 매주 이틀씩 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름이 '문화제'이듯 행사 내용은 한국 전통민속을 재현하는 공연과 놀이, 장터 등인데 다채로운 장르가 마련된다. 기본적으로 풍물, 마당극, 탈춤, 부채춤, 강강술래 등의 공연을 위해 처음 복재를 쥐어보는 어린이나 어머니들, 학생들부터 그들을 지도하는 선배

등 백여명의 참가자들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를 입고 우리의 흥을 맛보며 평연습을 한다. 몇 번 연습장소에 가보았는데 쉬는 날도 따로 없이 많은 이들이 열심인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문화제는 전날 길놀이로부터 열린다. 당일은 동네의 한 초등학교에서 펼쳐졌는데 오전 10시 풍악소리와 더불어 행사가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다. 막상 문화제 보러 갔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그리 넓지 않은 학교이기는 했지만, 주변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 놀이마당, 우리옷 입어보기 등 다양한 코너와 중앙 공연마당으로 나누어진 행사장이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없이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날의 모습을 넘쳐나는 색깔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좋은 가을하늘 아래 지칠 줄 모르고 그간 연습한 볼거리들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참가자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 마당극은 사랑하는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확인하며 전통혼례를 올린다는 것인데, 전통혼례 재현 뒤

부채춤이나 민요 등의 피로연이 베풀어졌다. 행사는 열기를 더해 대풍물공연과 전체가 함께하는 강강술래로 마무리되었는데, 본고장 한국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내용과 규모였다. 내 나라에 살지 못하지만 내 나라·내 민족의 모습을 찾아본다는 이쿠노 재일동포들의 축제를 여는다는 물론 복잡한 내부문제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 뒤적여보기 앞서 "하나가 되어 펼쳐 보자"는 이쿠노 문화제의 현장은 이 땅에 사는 동포들에게 참으로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퍼즐 퍼즐〉 - 정답은 56쪽에

1		2		19		21		24
				20				
		3	4			22	23	
			5		6			
11	10				7			18
			8					
9						16		
				14				
		12				17		
13				15				

가로열쇠) ①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함께 일반보육환경에 배치하여 장애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도록 하는 것. ② 잘 때 몸을 덮는 것. ③ 토레아이 표현체중보다 20% 이상일 때를 말함. 보통 많이 먹어서 생긴다. ④ 옛 씨족공동체사회의 청소년집단이 그 기원. 신라대 사회제도화된 것으로 진골출신의 화랑과 남도로 구성되었다. ⑤ 대하,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를 다 합해서 부르는 말. ⑥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⑦ 한보와 기아의 공통점입니다. ⑧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일부러 교각에 구멍을 내서 균열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⑨ 남이 복수의 대령장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이룸. 이 때문에 지구상의 기상변화가 속출. ⑩ 조선말 한일합방을 주장했던 친일매국단체. ⑪ 연속극 『파랑새는 있다』에서 병달이가 직업으로 하는 것. ⑫ 천자문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 ⑬ 소독한 술. ⑭ 요즘 이거하다 3번 걸리면 상진아웃으로 구속된다조? 신은경, 임현식, 허재, 김홍국의 공통점. ⑮ 사내에서 사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파는 신문이나 잡지.

세로열쇠) ① 중앙행정기관의 하나. 통상, 산업, 공업과 동력, 지하자원 및 열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봄. ② 물건을 보자기에 쓴 점이. ③ 수돗물에 이걸 넣으면 충치를 60%나 예방할 수 있다조? ④ 색유리나 색종이를 거울을 댄 원뿔에 넣어 돌려보는 장난감의 일종. 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본연산 4가지. ⑥ 이인제씨와 조순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을 0000했조. 중도에 그만둬. ⑦ 포도당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적인 오줌. ⑧ 요즘 날씨가 이제 심해서 감기 걸리신 분 많을 겁니다. ⑨ 안동 하회동의 별신굿 탈놀이에서 등장하는 탈로 국보이기도 합니다. ⑩ 육계육천(獸界六天) 가운데 넷째 하늘. ⑪ 옛기름을 무린 불에 밥을 넣고 삭여서 달인 음식. ⑫ 운전하는 사람. ⑬ 김대중씨와 김종필씨가 이거 하나를 고리로 연합을 구성했조. ⑭ 순수한 사람이야기.

탁아소별곡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할머니 경호원

우리 어린이집 대문 앞에 놓인 평상. 알고 보면 두달 전 돛자리에서 출발한 것이란다.
마을 할머니들은 무덤고 지루한 여름밤을 어린이집 앞에서 보내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들을 위해 평상을 하나 만들어주셨다. 그후로 저녁때면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신다. 특히 밤 늦게까지 야간보육을 하는 교사
들에게는 세콩보다 더 안전하고 믿음직한 경호원들이시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 이야기 둘 - 이망이 뭐야?

아동미다 언아발달이 다른 달님반에서 있었던 일.
정한별 : 찐뽕님, 우리 아빠 이망 있어요.
교 사 : 응? 이망?
정한별 : 네, 이망.
교 사 : 이마 말이나?
정한별 : 아니, 이망.
교 사 : 그럼, 이모 말이나?
정한별 : 아니, 아-망-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국일이 대답하라는 듯이 끼어들었다.
김국일 : 어이, 선생님은, 한별이아빠 차가 르망이예요. 오늘 얘가 르망 타고 왔다는 얘기에요.
교 사 : ■

☺ 이야기 셋 - 자원봉사 하는 이유

어린이집을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어느 일요일.
출근하던 교사들 : 으-악, 이게 뭐야?
어린이집 놀이터는 그아말로 썩대밭이었다. 혼자하니 지난 일요일, 마을 모든 어린이들이 마을놀이
터로 애용하였다는 것. 더욱 놀란 것은 옥상의 수영장 물이 뿌영게 흐러있고, 자전거 놀이터의 한
구석에는 동이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주 일요일, 원장 선생님은 '행여나'하는 마음에 어린이집에 들렀다. 외보니 역시나 마을 아이들이
옥상으로 진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장님은 아이들을 불러 내렸다.
원장선생님 : 이 녀석들,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너희들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나?
아이들 :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신 안그럴게요.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이성과 반이 적혔고, 반성한다는 뜻으로 어린이집에 자원봉사를 오겠다고 악
속했다. 그 아이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주었고, 어린이집 자람이기가 되었습니다.

☺ 이야기 넷 - 엄마는 세 살

아직 나이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최심지가 선생님과 나는 대화다.
심 지 : 선생님, 우리 아빠 몇 살인지 알아요?
교 사 : 몰라, 몇 살인데?
심 지 : 네, 우리 아빠요, 네, 우리 아빠, 열 아홉 살이디요.
교 사 : 으응, 그래?
심 지 : 키가 커서 열 아홉 살이디요, 우리 엄마는 몇 살인지 알아요?
교 사 : 몰라, 몇 살인데?
심 지 : 네, 우리 엄마요, 네, 우리 엄마, 세 살이디요?
교 사 : 정말, 엄마가 세 살이야?
심 지 : 키가 작아서 세 살이디요.
교 사 : 그렇구나.
심 지 : 그런데, 우리 삼촌은요, 네, 열 아홉 세 살이디요.
교 사 : 왜?
심 지 : 키가 커서 열 아홉 세 살이디요.
교 사 : 께

우리들의 목소리(1)

야마가타 기록영화제가 주는 메시지

김태일 · '푸른영상' 연출가,
책썩이어린이집 주혜민선생님 남편

우리의 경우 영화제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지만 정말 영화제의 기본에 충실한 영화제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감독의 삶이 묻어나는 영화제, 영리목적보다는 영화로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는 야마가타영화제는 기본적으로 부러웠다.

야마가타영화제는 일본의 작은 현 야마가타시에서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올해로서 5회째인데, 내 작품 한편이 초청되어 처음으로 국제영화제 구경을 갈 수 있었다. 2년전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작품이 상을 받았던 영화제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하면 TV에서 하는 것 외에는 극장에서 구경하기 힘든 우리 상황으로는 이번 영화제는 내게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기록영화는 배우를 쓰는 극영화와 달리 사실을 기록하거나 사건이나 상황을 좇아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다. 그래서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밖에 없어 일상에 치진 현대인들에게 의면받는 영화장르이기도 하다. 이번 영화제에는 출품한 40여개국 160여편이 상영됐다.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경제적 안정권에 놓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만든 작품들이 현격한 차이다. 안정된 나라의 작품은 정치나 사회상황보다는 개인과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시아권의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보다는 사회와 국가정치와 인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기록한다는 본연의 임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주로 출품된 작품의 내용은 가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이란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작품에 등장하는 12살 정도 된 꼬마아이는 고향집이 너무 가난하여 학교도 갈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부모가 도시로 팔아버렸다. 부자집에서 청소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모습과 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사회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인터뷰중 제일하고 싶은 것이 뭐냐는 질문에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싶다. 나 이 들면 부자집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해 돈을 뺏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래도 이 작품은 양호한 편이다.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매춘이나 마약에 빠진 모습이나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장면은 가난은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까지 파괴시킨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었다.

결혼한지 3년째고 10개월된 아들을 둔 나로서는 남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라고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만들어 갈 세상은 부모들에게 배운대로 만들 것이다. 부모가 되어서야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 부를 갖춘 국가라 할지라도 절대적 빈곤에 놓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미래사회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아이와 아이엄마 생각을 많이 했다. 아이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이 입장에

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아이의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고민이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명절 때 고향을 가기 위해 겪는 고통은 정말 몇달전부터 신경써야 하는 문제였다. 왜 아이들을 위한 자리는 하나도 없을까. 혹 아기가 물기라도 하면 승객들에게 죄짓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달랠 기억이 난다.

아이들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신경써야 하며 개별 가정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내 아시아 지역 작품을 보면서 나는 아들의 얼굴을 수없이 떠올렸다. 우리의 문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의 교사들에게 작은 민들레 꽃씨를 드리고 싶다.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을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나의 아내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

우리들의 목소리(2)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조용란 · 주부, 오손도손에기방 전직교사

며칠간 버르던 커피를 마셨다. 헤린이가 깨어있거나 집안 일을 쌓아두고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아하게 마시지 못할 것 같아 미뤄왔던 것이다. 평소 잠귀가 밝은 헤린이가 예정된 시간을 못 채우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하려던 일이 밀리기 시작하고, 얼마전까지는 상으로 달치는 헤린이를 피하느라 싱크대에 서서 밥을 먹기도 했다.

주변에 아이 맡길 곳이 변변히 없어 항상 붙어다녀야 하는 지금, 헤린이의 생체리듬이 곧 내 생활의 일정이 되어버렸다.

얼마전 보육교사회에서 그림책 강좌가 있으니 참가하라는 전화를 받고, 잊지 않고 청겨주는 마음도 고맙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볼 겸 약간의 설렘을 안고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갑작스런 헤린이의 구토증세로 늦게라도 가려고 했던 마음을 꺾고 누르고 주저앉아야만 했다.

헤린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겹고 외로운 것이 사실이다. 동네를 돌아봐도 3-4시가 넘어야 유치원에 학원까지 끝내고 돌아오는 아이들이나 겨우 만날까 그전에는 사람이라곤 거의 볼 수 없이 너무도 한적하다. 아이를 둘 이상 키우거나, 집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젊은 사람이 집에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건, 개, 비둘기, 닭 그리고 요즘 뒷산에서 새로 발견한 까치가 그저 반갑고, 집앞 대추나무만 보면 조그만 손을 겹쳐들고, '때주 주세요'하는 것도 헤린이의 일과중 하나가 되었다.

헤린이를 키운지도 만 15개월 채다. 아직도 집에 있나는 예기도 간간이 들려온다. 일을 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중 기혼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딱지였다.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지난 시절, 부모의 눈이 된 지금은 아이의 건강, 안전, 청결, 그리고 먹거리의 중요함이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또한 유난히 꼬집하던 아이의 엄마가 흘리던 눈물과, 우는 아이 때어놓고 가서 거의 일을 섰다던 부모마음이 가슴으로 와 닿는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부모와 아이가 새롭게 가슴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기혼교사의 장점일거다.

서른이 넘어선 지금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헤린이를 맡겨야 하는 두려움에 만감이 교차되지만 '일을 해야지'하고 마음 먹었을 때 솟구치는 색다른 활력감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를 알리는 것 같다.

보육계 풍향

제10기 공동육아 현장학교 “교사자격과정”

제목 : 제10기 공동육아 현장학교 교사자격과정
대상 :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
교육기간 : 1997년 11월11일 - 1998년 2월24일
교육시간 :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수강료 : 전과정 30만원
등록방법 : 은행으로 입금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외환은행 187-22-00374-4
예금주 : (사)공동육아연구원
입금 후 연구원으로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공동육아연구원 (전화 : 02-3471-0606)

인천보육교사회가 준비하는, ‘보육교사와 함께 여는 우리의 장단, 우 리의 노래’ 열린 강좌 안내

초롱초롱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보며,
그 안에 그네들의 희망에 찬 삶을 그려보는, 그래
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우리들은 이 땅의
자랑스런 보육교사들입니다.

10월이면 으레히 우리나라에 대한 주제를 잡
고, 이야기나누기도 하고 태극기도 그려보고 컵라
면 용기로 장구도 만들어 보고 “우리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요”하면서 노래도 불러보지만, 단원
이 끝나고 나면 뭘 할 것이 밀려드는 허전함은 왜
일까요?

한시적인 교육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내용 속에 자
연스럽게 우리민족에 대해 알아가고 느껴갈 수 있
는 권리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고자 보육교사들
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열린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목 : ‘보육교사와 함께 여는 우리의 장단, 우리
의 노래’
일시 : 1997년 11월28일(토) 늦은 3시30분 - 7시
장소 : 교육문화 공간 ‘밝은터’(도원역 야구장 건
너편)
참가비 : 1만 5천원
준비물 : 소고, 편한 복장, 참가비
프로그램 :

- * 1부 사전행사
 - 노래배우기
 - 보육교사 종별패 ‘메나리’ 축하공연
- * 2부 ‘우리의 장단, 우리의 노래’
 - 감사 : 임수정선생님
(중앙대학교 국악과 강사, 공동육아연구원
전문위원(국악), G.Y.N(세계청소년 네트워
크) 전문위원(국악),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
화재 제97호 전수자

* 3부 뒷풀이
- 신명나는 놀이 배우기
문의 : 인천보육교사회 032-518-0213
(오후 3시 이후 문의가능)

한국여성단체연합 97여 성문화 한마당 “힘모아 힘을 줘”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대
선과 관련된 사업을 공보처의 지
원을 받아 ‘여성문화 한마당’을
10월 18일 대하로 마로니에 공원
에서 여연 회원단체와 여성, 시
민들 약 1,000여명이 참가한 가
운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이 이 땅의
담당한 한 유권자로 건강한 선거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고 15대 대
통령은 올바른 여성정책을 펴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자는 취지
에서 마련된 것으로, 춤과 노래
춘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사무국 전원이 참석하여 본회에
서 제작한 ‘15대 대통령이 이행
하여 할 보육정책 3대 과제’라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홍보전을 하였습니다.



소식과 소식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본회와 (사)한국여성단체연
합은 공동주최로 10월24일 금요
일 종로성당에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보육관련단체, 양성교육원
생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
육교사회 발족 이후 첫 대외 행
사로써 의미와 국민
적 관심도가 높은
유아교육개혁에 관
한 토론회라는 점에
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
교육개혁은 아동을
중심에 둔 개혁안이
라기 보다는 기관중
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저히
폐쇄적인 붕괴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양질의
교육의 혜택을 동등
하게 받을 수 있는
등의 다른 관점으로
의 접근이 이뤄졌습
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
은희 상임대표의 사
회, 본회 정책개발위
위원 이은애선생님의
주제발제, 윤선영(순

천향대)선생님의 독일 보육현황
에 대한 사례발제, 김종혜(가봉
릭대)교수·김경애(동덕여대)교
수·송대현(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선
생님의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
다.

본회의 내용이 다소 거칠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새로운 전
근방식이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
았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의 체계 적인 건강관리를 위하 여’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이 본회와
인의협 주체로 실시되었습니다.
건강관리교사 모임의 확산을 위
해 마련된 이 행사에 36분의 교
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건강관리교사 모임에 참석하
고 있는 노승경 선생님(예술어린

이집 교사)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주제발제를, '행동장애 어린이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주제로 전지홍(보훈병원 신경정신과)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건강검진을 실시해주신 이장희(산본가정의학과 의원)선생님의 검진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건강관리교사모임이 구성되기를 바라며 광주보육교사회에서도 나백주(광주대 보건의료학 교실)선생님의 도움으로 건강관리교사 모임이 곧 결성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3차연구모임

3차 연구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명이 참석, 야외놀이, 자유놀이를 주제로 2회 진행되었고 앞으로 체벌과 교사의 직업관을 주제로 2회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교사 모임

1,2,3차 의료기관의 이용법과 하는 일에 대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5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봉구보건소, 유소아과, 사당의원, 동수원병원을 방문한 교사들이 의료기관 이용절차, 질병에 대한 과배정, 보건소에서 하는 일, 각종 검사의 종류, 의상처치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8회 모임은 의상처치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9회 모임은 '검기

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교사 모임의 추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다음 모임은 11월7일 오후 8시 어깨동무에서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1997년 10월에 있는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를 통해 한국보육정보연구소를 회원단체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서울시민간, 가정보육시설연합회의 연구의뢰를 받아 시작한 [서울시 민간, 가정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질평가]연구가 9월 마감되었습니다. 9월30일 서울시민간,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이 연구에 대한 발표회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가졌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시민운동지원기금 프로젝트 사업으로 [3세 이상유아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실천하는 생활중심 환경교육"을 개발 12월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천보육교사회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새싹 김동준선생님(10/6), 밝음 이연순선생님(10/27), 나눔 이삼미선생님(10/28), 샘터 이인희선

생님(11/13), 밝음 이정원선생님(11/19)

■ 9월28일 낮 2시에 나눔어린이집에서 전직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전직교사모임의 격월로 정례화와 전직교사 친목교사, 정보교환, 인천보육교사회 활동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김영미선생님(전 골목어린이집 교사), 총무-조영숙선생님(전 무지개동산 교사)> 회비는 월20,000원이고요 11월 모임은 16일 있습니다.

■ 전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였던 안인숙선생님께서 10월3일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아들딸 속속 낳아서 행복하게 하세요!

■ 10월8일,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 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연대모임' 주최로 인천대 인문관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여명의 인천보육교사회 회원들도 참석하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0월19일 일요일에 '97 제2회 가을 운동회를 하였습니다. 가을 운동회 놀이를 통해 건강한 보육교사, 하나되는 보육교사회가 되어보자란 주제였어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푹고 할퀴고 피터지는 날이였습니다.

■ 인천보육교사회 회원들로 있는 새싹들의 방과 세쌍둥이 어린이집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간을 찾다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일단 세쌍둥이 원아 5명이 새싹방으로 임시 이

전하였습니다. 세쌍둥이는 10월 25일 집 계약만료일인 관계로 구청에 휴원신청을 낸 상태이고, 통합할 어린이집의 근거지는 부평구(새싹) 또는 남구(세쌍둥이) 중 한곳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국공립보육교사회

■ 10월14일 있는 '좋은 그림책 알아보기와 활용에 관한 강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국공립교사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그림책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확대도 되었구요.

봉천보육교사회준비위

■ 인형극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박명숙선생님이시고 봉천교사들과 서울지역의 교사, 10명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12월에 공연을 할 예정이라니 기대되네요. 공연후 다른 지역에서도 인형극공연을 관람할 수 있겠죠?

수원보육교사회준비위

■ 11월9일 수원보육교사회 준비위에서는 운영기금마련으로 일일호프를 합니다. - 돈 많이 벌길 바래요.....

■ 수원교사들과 수원여성회의 인형극소모임에서 매달 인형극공연을 하는데 10월엔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를 합니다.

■ 교육부에서는 우리교육내용을 정리 중에 있고 정리가 끝나면 자료집으로 낼 예정입니다.

■ 조직부 사업으로 11월 12일 전직교사와 아홉아름 아는 교사들을 모아 모임을 하여 소모임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광주보육교사회준비위

■ 현재 광주보육교사회는 운영위 활동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그런 대로 성과가 나타나 상반기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예정되었던 보육학교는 시기문제가 걸려 내년 2월로 연기하였습니다.

■ 상반기에 이어 제2기 보육교사 열린 마당을 11월29일 개최하며, 내용으로는 보육교사회 준비위의 소모임 내용 발표와 홍보가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보육교사회

■ 부산보육교사회 회원들의 변동사항이 많아 조금은 어수선했던 분위기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교육부장 김혜원선생님이 귀수술을 하시고, 해원의 장정숙선생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시는 등 이러저러 심란하지만 소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 결혼하십니다.

남부보육교사회 이현경(새터어린이집)선생님이 12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천안지역 :

박분희(다가어린이집 교사)
김종화(화영어린이집 교사)
서진심(서부어린이집 교사)
서용숙(조은어린이집 교사)
지규남(비손조기교육연구원 교사)
다섯분의 신입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힘찬 모습으로 아이들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10월 활동일지

- 10/ 2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 4 조직부 회의
- 6 집행위원회
- 10 건강관리교사모임
- 13 집행위원회
-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 17 교육소모임
- 18 여성문화 한마당
- 보육시설 어린이의 건강관리 위한 교사교육
- 20 집행위원회
- 24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이사회
- 건강관리교사모임
- 27 교육소모임

■ ■ ■ 편집부에서 ■ ■ ■

◆ 감기 조심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던 광고문언이 같죠? 날씨가 이젠 정말 늦가을을 티내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 『우리네 아이들』 가족들도 감기 걸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네요.

이번 감기는 유난히도 오래간다고들 주위에서 불평이 많더라고요. 가을을 만끽하느라 정신없는 독자님들께서는 특히나 더 감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만 쌀쌀해진 게 아닙니다. 정치판이고 경제상황이고 어느 것 하나 우리 가슴을 쌀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있다면 그나마 한국축구팀이, 차범근감독이 싸늘해진 우리 가슴을 조금이라도 따스하게 데워줘서 살 맛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희망이 뿌옇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이면 우리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 날이 오는데 아직도 우리 가슴은 허허하게 찬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 맛이 없어졌어도 선거는 해야겠죠? 남은 한달여 기간동안 독자님들의 바쁜 판단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희망을 그려보자구요.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입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변주남,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상록수어린이집, 양덕보육정보센터, 김금자, 이정순, 장미숙, 장윤정, 문경희, 송재영김경신, 근로복지공단
님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과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교사는, 우선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을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소식지, 중앙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될 수 있고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원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여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찍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한국보육정보연구소
TEL: 02-398-1004

1. 시설명	2. 시설장	3. 시설종류	4. 시설소재지
5. 시설규모	6. 시설연도	7. 시설특성	8. 기타사항
9. 시설주최자	10. 시설주최자 연락처	11. 시설주최자 주소	12. 시설주최자 이메일
13. 시설주최자 직업	14. 시설주최자 학력	15. 시설주최자 경력	16. 기타사항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메뉴입니다.